東海 於達山 烽燧臺

이규대
이동순
윤석인
이창현
심상육

2001

東海市
江陵大學校博物館

표지사진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동→서〉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남쪽(동해시)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북쪽(동해시)



어달산 봉수대 서쪽 석축 쌓은 모습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나온 모습(동→서)

目　次

Ⅰ. 調査槪要 ····· 9

1. 調査經緯 ····· 9

2. 調査目的 ····· 11

3. 調査團構成 ····· 11

Ⅱ. 嶺東地域 周邊의 주요 關防遺蹟 ····· 12

Ⅲ. 於達山 烽燧臺의 歷史的 變遷 ····· 23

Ⅳ. 遺蹟의 位置 및 周邊環境 ····· 31

Ⅴ. 調査內容 ····· 33

1. 發掘調査 經科 ····· 33

2. 調査內容 ····· 34

1) 煙臺部 ····· 36

2) 塹壕 ····· 40

3) 土壘 ····· 44

3. 出土遺物 ····· 44

Ⅵ. 綜合考察 ····· 59

1. 遺構 ····· 59

2. 遺物 ····· 61

3. 맺는말 ····· 62

그림 목차

〈그림 1〉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어달산 봉수 ····· 10
〈그림 2〉 어달산 봉수대 위치도 ····· 32
〈그림 3〉 어달산 봉수대 해체 전 실측도 ····· 35
〈그림 4〉 어달산 봉수대 해제 전 연대부 실측도 ····· 37
〈그림 5〉 봉수대 발굴조사 후 실측도 ····· 38
〈그림 6〉 어달산 봉수대 발굴조사 후 연대부 단면도 및 측면 입면도 ····· 39
〈그림 7〉 어달산 봉수대 서쪽 트렌치 실측도 ····· 41
〈그림 8〉 어달산 봉수대 남쪽 트렌치 실측도 ····· 42
〈그림 9〉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실측도 ····· 43
〈그림10〉 어달산 봉수대 북쪽 트렌치 실측도 ····· 45
〈그림11〉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전체 평면 및 단면도 ····· 46
〈그림12〉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 48
〈그림13〉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 49
〈그림14〉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 51
〈그림15〉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 53
〈그림16〉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 54
〈그림17〉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 55
〈그림18〉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지표채집 유물 ····· 57
〈그림19〉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지표채집 유물 ····· 58

사진 목차

〈사진 1〉 ① 어달산 봉수대 먼 모습(북→남) ····· 67
② 어달산 봉수대 먼 모습(남→북)
〈사진 2〉 ①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서쪽 ····· 68
②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남쪽
〈사진 3〉 ①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동쪽 ····· 69
②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북쪽
〈사진 4〉 ① 어달산 봉수대 가까운 모습(서→동) ····· 70
② 어달산 봉수대 가까운 모습(동→서)
〈사진 5〉 ① 어달산 봉수대 북쪽 석축 쌓은 모습 ····· 71
② 어달산 봉수대 남쪽 석축 쌓은 모습
〈사진 6〉 ① 어달산 봉수대 동쪽 석축 쌓은 모습 ····· 72
② 어달산 봉수대 서쪽 석축 쌓은 모습
〈사진 7〉 ① 개토제 모습 ····· 73
② 어달산 봉수대 해체작업 모습
〈사진 8〉 어달산 봉수대 해체작업 모습 ····· 74
〈사진 9〉 어달산 봉수대 상면 적석 제거 후 모습 ····· 75
〈사진10〉 조선시대 석축 및 숯 · 모래 노출모습 ····· 76
〈사진11〉 ①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나온 모습(서→동) ····· 77
②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나온 모습(동→서)
〈사진12〉 ① 어달산 봉수대 내부 적석 제거 전 모습 ····· 78
② 어달산 봉수대 내부 적석 제거 후 모습
〈사진13〉 ① 어달산 봉수대 내부 퇴적토 트렌치 넣은 모습 ····· 79
② 어달산 봉수대 내부 퇴적토 제거 후 모습
〈사진14〉 ① 어달산 봉수대 석축 쌓은 모습 (內→外) ····· 80
② 어달산 봉수대 내부 적석 모습
〈사진15〉 ① 어달산 봉수대 내부 퇴적토 및 기반암 모습 ····· 81
② 어달산 봉수대 유물 출토 모습

〈사진16〉 ① 어달산 봉수대 숯 출토 모습 ····· 82
② 어달산 봉수대 동쪽 석축 모습
〈사진17〉 ①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서쪽 석축 모습 ····· 83
②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남쪽 석축 모습
〈사진18〉 ①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남쪽 석축 들여쌓기한 모습 ····· 84
②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서쪽 석축 들여쌓기한 모습
〈사진19〉 ①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추정 출입구 모습 ····· 85
②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넣은 모습(서→동)
〈사진20〉 ①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넣은 모습(동→서) ····· 86
②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축대 나온 모습
〈사진21〉 ①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석축 및 호 단면 모습(북→남) ····· 87
②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석축 및 호 단면 모습(남→북)
〈사진22〉 ① 어달산 봉수대 북쪽 호 트렌치 넣은 모습 ····· 88
② 어달산 봉수대 북쪽 호 트렌치 석축 나온 모습
〈사진23〉 ① 어달산 봉수대 북쪽 호 트렌치 석축 및 호 단면 모습 ····· 89
② 어달산 봉수대 서쪽 호 트렌치 넣은 모습
〈사진24〉 ① 어달산 봉수대 서쪽 호 트렌치 석축 나온 모습 ····· 90
② 어달산 봉수대 서쪽 호 트렌치 석축 및 호 단면 모습
〈사진25〉 ① 어달산 봉수대 남쪽 호 트렌치 넣은 모습(북→남) ····· 91
② 어달산 봉수대 남쪽 호 트렌치 넣은 모습(남→북)
〈사진26〉 ① 어달산 봉수대 조사 후 유구 보호 모습 ····· 92
②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먼 모습
〈사진27〉 ①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가까운 모습 ····· 93
②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석재 모습
〈사진28〉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석재 모습 ····· 94
〈사진29〉 어달산 봉수대 출토유물 ····· 95
〈사진30〉 어달산 봉수대 출토유물 ····· 96
〈사진31〉 어달산 봉수대 출토유물 ····· 97
〈사진32〉 어달산 봉수대 출토유물 ····· 98
〈사진33〉 어달산 봉수대 남쪽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지표채집 유물 ····· 99

Ⅰ. 調査概要

1. 調査經緯

봉수는 국가 방어체계의 하나로 변경지역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 또는 변경의 기지 등에 신속히 알리려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통신수단의 하나로, 이는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하였다.

봉수라는 말이 봉(烽 · 횃불 · 炬)과 수(燧 · 연기 · 煙)로 변방의 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던 통신방법을 뜻하는 것과 같이, 이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불을 피워서 그 불빛과 연기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밤에는 횃불(炬火)이 잘 보이지만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꽃 대신 연기로써 신호를 보내던 야화주연(夜火晝煙)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즉 대략 수십리의 거리마다 바라보고 살피기에 좋은 요지의 산 꼭대기에 봉수를 두어 밤에는 횃불을 들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 전달함으로써, 국방상의 중요한 임무를 빨리 알리고 경비에 전신 역할까지 맡아하던 중요한 시설이며, 제도였던 것이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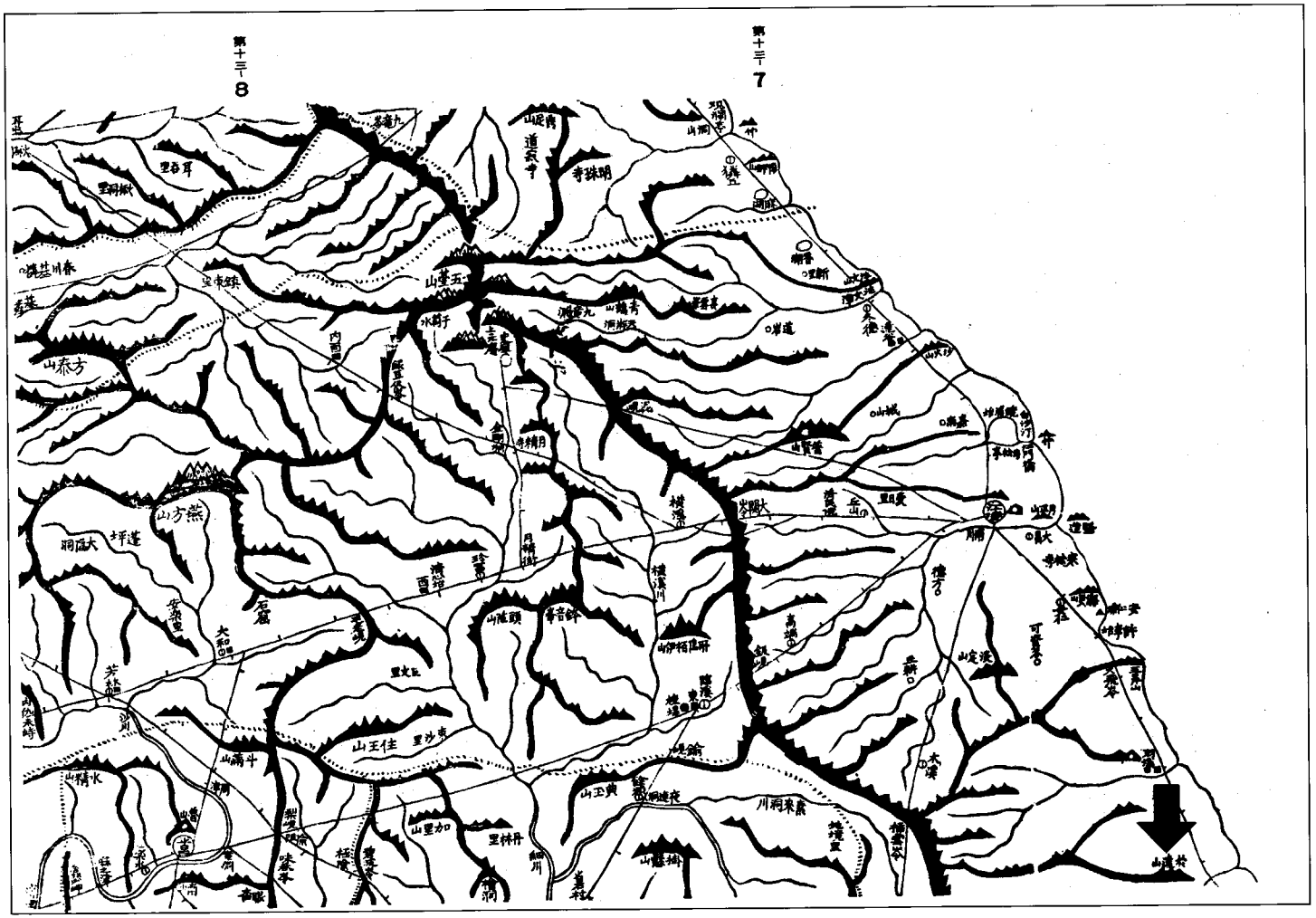
강원도 영동지방은 고대에 있어서는 신라와 고구려의 영역 쟁탈지였으며, 또한 동해와 접하고 있는 관계로 예전부터 산성 및 봉수대가 많이 축조되어 있다. 동해의 어달산 봉수대도 이 중 하나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고 혹은 위급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71년 강원도 기념물 제 1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온 어달산 봉수대가 언제 축조되었고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하는 바가 없다. 다만《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사료에는 그 기록이 보이나,《輿地圖書》·《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등에 어달산 봉수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달산 봉수대는 조선 전기에 축조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 봉수의 명칭은《세종실록지리지》에는 어을달산으로,《신증동국여지승람》 및 그 이후의 사료에는 어달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12.5km 떨어진 강릉 심곡의 오근산 봉수 · 남쪽으로는 삼척 교동의 광진산 봉수와 서로 연결된다.

---

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韓國의 城郭과 烽燧》下. p. 571.



〈그림1〉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어달산 봉수

봉수가 폐지된 이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朝鮮古蹟寶物調査資料》에 의하면 '토루와 봉화대지가 겨우 있다' 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1968년에 광산업을 했던 조영준씨의 증언에 의하면 '봉수대는 거의 허물어진 상태였고 주변에는 많은 석재가 무너진 상태로 있었으나, 1971년도에 다시 쌓여졌다' 고 한다. 또한 현재 어달산 봉수대에는 이 곳이 강원도 기념물 제 13호로 지정되었던 1971년에 정비 · 복원되면서 세워진 비석이 남아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지금의 어달산 봉수대는 허물어져 있던 것을 1971년 정비 사업을 통해 다시 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정비 · 복원 과정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현 상태로 보아 당시 전문적인 고증을 거치지 않은채 돌만 쌓아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동해시에서는 어달산 봉수대에 대한 보다 올바른 정비 ·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요청해 옴에 따라, 2000년 7월 27일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고, 2000년 8월 24일까지 약 30일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 調査目的

어달산 봉수대는 1971년도에 정비 · 복원을 실시하면서,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 13호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태를 볼 때, 원형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복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과거의 복원 당시 정확한 고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동해시에서는 강원도의 봉수대 중 아직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어달산 봉수대를 발굴조사하여, 이에 따른 고고학적인 자료와 고찰을 통해 남아 있는 봉수대의 형태와 그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후 올바른 복원자료를 확보하고자 우리 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3. 調査團構成

단　　장 : 이 규 대(강릉대학교 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백 홍 기(강릉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지 도 위 원 : 최 영 희(문화재위원)
　　조 유 전(국립문화재연구소장)

차 용 걸(충북대학교 교수)

심 정 보(대전산업대학교 교수)

조 사 위 원 : 지 현 병(강릉대학교 박물관)

조 사 원 : 고 동 순(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조사보조원 : 박 영 구(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이 창 현(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심 상 육(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최 영 희(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본 발굴조사에 행 · 재정적 지원과 많은 도움을 주신 동해시청 관계자님들과 가파른 산행에도 찾아와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지도위원님 및 여러 선생님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행한 여러 조사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본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유물의 정리와 복원은 심상육이 했으며, 유물의 사진촬영은 이창현, 유구 및 유물 실측, 도면 트레싱은 심상육 전담하였다. 보고서 집필은 현장기록을 토대로 고동순, 이창현, 심상육, 자기부분에 대하여는 윤석인 맡아 집필하였다. 봉수대의 역사적 배경은 이규대가 하였고, 전체적인 편집은 조사단의 도움을 받아 지현병이 하였다.

Ⅱ. 嶺東地域 周邊의 주요 關防遺蹟

1. 향호리 봉수지(주문산 봉수)[2]

· 소 재 지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발우봉

· 유적현황 : 주문진-양양간 국도변의 향호교를 지나서 군부대를 돌아 서쪽으로 약 1.7km쯤의 발우봉에 위치한다. 현재 봉화터로 불리는 자리는 직경 5m 둘레가 자연석으로 둘러 쌓여 있고 인공석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사방이 확 트여 남으로 주문진 일대, 북으로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의 양야산 봉수대까지 바라다 보여 봉수대의 위치로서는 매우 적합한 곳이다. 문헌[3]에 의하면 북으로 양야산 봉수, 남으로 사화산 봉수와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사화산 봉수지[4]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사화산

· 유적현황 : 옛 기록[5] 에 의하면 이 봉수대는 강릉 북쪽 20~30리의 사화산에 있던 봉수대로 남쪽의 소동산 봉수에서 연락을 받아 북쪽 연곡의 주문산 봉수로 전달하였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 없으며,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기록으로 볼 때 연곡천과 사천천 사이의 사천면 구릉일대에 분포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소동산 봉수지[6]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 유적현황 : 옛 기록[7]에 따르면 이 봉수대의 지명은 소이동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소동산 봉수라 칭하고 있다. 강릉 동쪽 7리의 동북 모퉁이에 있으며 남쪽 해령산 봉수에서 연락을 받아 북쪽 사화산 봉수로 전달하였다. 현재 정상에는 해안경비 군부대 시설이 있다.

4. 안인리 봉수지 (해령산 봉수)[8]

· 소 재 지 :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봉화산

· 유적현황 : 강릉에서 동남쪽 약 20리 지점의 안인진 북쪽 해안에 돌출한 봉화산 정상에 위치한

---

2)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1989.《韓國의 城郭과 烽燧》.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4.《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3)《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五十三 地理誌 江陵大都護府
'注乙文 北准襄陽任內洞山陽也'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陵大都護府 烽燧
'注文山烽燧 北應襄陽府 陽野山 南應沙火山'
《輿地圖書》上 江原道 烽燧
'注文山烽燧 在府東六里 南應陽野山烽 北應江陵羽溪縣於達山烽 今廢'

4)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1989.《韓國의 城郭과 烽燧》.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4.《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5)《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五十三 地理誌 江陵大都護府 沙火 北准連谷注乙文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陵大都護府 烽燧

6)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1989.《韓國의 城郭과 烽燧》.

7)《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五十三 地理誌 江陵大都護府
'所伊洞 在府東北隅 南准海令 北准沙火'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陵大都護府 烽燧
《輿地圖書》上 江原道 江陵 烽燧條

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의하면 '강릉 동남 약 이십리 안인진의 북해안에 독립한 산상에 있고 토루 및 봉화대지가 현존함' 이라 하여 당시까지는 봉수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석축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돌 2개가 남아 있으며 군부대의 레이다 기지가 들어서 있다. 현 주민의 말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전하며 막돌(자연석)과 흙으로 축조되어 있었다고 한다. 문헌[9]에 의하면, 이 봉수지는 북으로는 소동산 봉수, 남으로는 오근산 봉수와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5. 월대산 봉수대[10]

· 소 재 지 : 강릉시 두산동 산 38번지

· 유적현상 : 월대산 봉수지는 해발 약 69m 높이의 봉우리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지의 정상에서 북쪽으로 약 500m 거리에는 강릉 남대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고 남대천과 월대산 사이에는 논과 가옥들이 자리잡고 있다. 봉수지의 동편으로는 계속해서 낮은 구릉과 논 밭들이 연결되면서 동해바다와 접하고 있고, 서편 역시 논들이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는 월대산 줄기가 뻗어 있다. 월대산은 강릉공항 진입로를 따라 가다가 좌측으로 맨 처음 나오는 구릉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대는 현재 2단으로 잘 남아 있고 기초석인 1단은 동편으로 약간 벌어진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봉수대는 큼직한 돌(1.3m×1.1m×0.9m)을 이용하여 2단 원형으로 쌓았고 남쪽편은 일부가 무너진 상태이다.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봉수대의 남쪽 경사면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과 석기조각 및 신라시대 토기편 등도 일부 지표채집 되었다. 월대산 봉수지는 동해안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정도이고 남쪽과 북쪽으로 연락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다.

6. 심곡리 봉수지 (오근산 봉수)[11]

· 소 재 지 :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 유적현황 : 심곡리의 북쪽 해안으로 뻗은 산정으로 현재는 경작지와 뽕나무 밭으로 변하여 그

---

8)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4.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9) 《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五十三 江陵大都護府 '海令' 으로 나와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陵大都護府 烽燧
海靈山烽燧 南應吾斤山 北應所同山
《輿地圖書》上 江原道 江陵 烽燧條

10)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5. 《강릉의 역사와 문화유적》.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현 주민들에 의해 봉수대로 불리고 잇을 뿐이다. 옛 기록[12]에는 우계현의 북쪽 20리, 강릉 관문(官門)에서 남쪽 30리에 있으며, 오근산 봉수대라 하였고, 남쪽으로 어달산, 북쪽으로 해령산에 응한다고 하였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資可谷面 深谷里, 江陵의 東南 約四里半 深谷里의 北約十町의 海岸의 山上에 있음. 土壘 及 烽火臺址 있을뿐, 一般이 五斤山烽燧라 稱함' 이라 하였다. 일설에는 임진왜란시 강동면 산성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삼한성과 이 봉수지가 서로 연락되었다고 전한다.

7. 낙풍리 봉수지[13]

· 소 재 지 : 옥계면 낙풍리 산 107

· 유적현황 : 성재라고 불리우며 그 유래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수년전 토기와 와편이 채집되었고 한다. 일설에는 이 봉수터를 望터로 추측하기도 한다.

8. 광진산 봉수지[14]

· 소 재 지 : 삼척시 교동 5

· 위치 및 현상 : 옛 기록[15]에 의하면 봉수대는 삼척읍 동쪽 6리 혹은 약 15정의 산위에 있는 토루 및 봉화대라 하였다. 남쪽 양야산에서 연락을 받아 북으로 강릉 우계현, 어달산에 전달하는 임무를 가졌던 봉수대로 이 광진산은 「여지도서」에 두타산의 지록이라고 하였다. 고려 의종 3년(1149)

---

11)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4.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2) 《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五十三 地理誌 江陵大都護府
'五斤 北准府地海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陵大都護府 烽燧
'五斤山烽燧 在羽溪縣北二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輿地圖書》上 江原道 江陵 烽燧
'五斤山烽自官門南距三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13)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4.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4)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5.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

15) 《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五十三 地理誌 江原道 三陟都護府
'廣津山 北准江陵任內 羽溪縣 於乙達山'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三陟大都護府 烽燧
《輿地圖書》上 江原道 三陟府 烽燧條
《大東地志》卷十六 三陟 山水 '廣津山 東六里'

에 조진약이 만들어 조선 말엽까지 봉수군 22인으로 지키게 했다고 한다. 이 봉수는 북쪽으로 강릉 우계현 어달산에 응하고 남쪽으로 양야산과 응했다. 현재 기단의 2, 3층은 원형이고 상부층의 돌은 붕괴하여 산재하여 있는 상태로 대략 원형기단으로 지름 8m, 높이 2m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9. 양야산 봉수지[16]

· 소　재　지 :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산 1

· 위치 및 현상 : 삼척의 5개 烽燧臺옛 중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北으로 광진산에 응하고 南으로 초곡산에 응한다. 현재 대략 가로, 세로, 각 9cm의 方形기단만이 原形으로 있고 위에 쌓은 돌은 붕괴되어 있으며 앞에는 유래를 알 수 없는 봉할머니 祭堂이 있어 어부들의 豊漁祭와 海亂, 사고의 안전을 기원하는 곳으로 어부들의 가족이 자주 와서 기원한다.

10. 두타산성[17]

· 소　재　지 : 동해시 삼화동 산 167

· 위치 및 현상 : 이 산성은 동해시 삼화동과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 하장면 번천리 사이에 자리잡은 두타산(1362m)의 북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성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世宗實錄》地理志에는 "頭陀山石城은 부의 북쪽에 있다. 둘레가 1,518보(2760m)이며 안에 세골짜기의 물이 함께 흘러서 하나의 내를 이루었는데 사철 마르지 않는다."[18]라고 기록되어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頭陀山城은 石築이며 둘레가 8,607尺(2608m), 높이 5尺(1.5m)이다."[19]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輿地圖書》에는 "頭陀山城은 府 서쪽 40리에 있다. 石築으로 둘레가 8725尺(2644m), 높이 6尺(1.8m)이며 太宗 13년(1413)에 축성하였으며 후에 倭寇들이 성을 함락시켜 성안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20]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增補文獻備考》에는 "두타산성은 서쪽 45리에 있다. 太宗 13년에 토축하였으며 둘레 8725척(2644m), 높이 8척이다. 후에 왜구들이 함락시켰다. 지금은 폐지되었다."[21]고 기록되어 있다.

---

16) 관동대학교 박물관 · 강원도 · 삼척시, 1995.《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

17)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7. 《동해 두타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8) 《世宗實錄》卷 153 地理志 三陟都護府條.

19) 《新增東國輿地勝覽》卷 44 三陟都護府 古跡條.

20) 《輿地圖書》上 江原道 江陵鎭管所屬三陟府 城池條.

21) 《增補文獻備考》卷28, 輿地考16, 關防4 江原道條.

그 이후 1942년에 발간된《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北三面三和里, 頭陀山國有林, 三陟의 西北 約四里 三和寺의 西北 約一里 頭陀山의 山頂에서 中腹에 걸친 石城으로서 주위 約三千間(5,454m). 대부분이 붕괴하여 峰面은 성벽을 잃음. 一般에 太宗三年의 축조 倭寇來侵陷之라고 傳함 " 이라 하였고,《全國遺蹟目錄》[22]에는 "北平面 三和里, 國有, 三陟의 約四里 三和寺의 西北方 約一里 頭 山의 山頂 中腹에 在, 石城" 이라 하였다.《文化遺蹟總攬》[23]에는《三陟郡誌》에 의하면 1414(조선 태종 14년)에 축성한 石城으로 壬亂에는 咸南安邊에서 남하해 들어오는 日本 주력부대에 의해 함락된 곳으로 天險의 지세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축성한 천연의 요새로 1周에 약 7日 정도 걸리는 큰성으로 현재 두타산 중턱에 부분적으로 石築이 남아 있다. 고려 忠烈王 때 李承休가 파직당하고 이곳에 은거 動安居士라 칭하며《帝王韻紀》를 집필했다고 전하며, 또 壬亂時 3일간 격전 끝에 要其의 비밀통로를 적에게 누설 함락되었다고 한다." 고 하였다.

현재 두타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상 동해시 삼화동 산167번지로서 두타산(1,353m)의 북쪽 중턱에 해당된다. 이곳은 두타산의 북쪽 능선부분으로서 그 내부와 주변은 모두 험준한 산지와 깊은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산성은 험한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쌓은 천연요새의 석축산성이다.

이 산성은 두타산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상으로 약 300m 내려오는 지점인 해발 1,032m의 정상부(南望臺)를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어지는 산능선을 따라 남쪽 성벽을 이루며, 해발 787m 지점에서 다시 북서방향으로 꺽이어 능선을 따라 동쪽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또한 남쪽입구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를 따라서 서쪽 성벽을 이루면서 해발 900m 지점에서 다시 북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점차 낮아지는데 능선을 따라 해발 775m 지점까지 성벽이 연결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북서쪽 방향으로 꺽이어 능선을 따라 서쪽 성벽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삼화동 무릉계곡안에 있는 고대사찰인 삼화사를 지나 서쪽 계곡의 소로를 따라 약 1.3km쯤 가면 좌측편에 두타산과 산성의 북쪽입구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가 있다. 여기에서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급경사진 가파른 산비탈길을 약 420m 정도 올라가면 비로소 성의 북쪽 입구가 되는 거대한 암석군에 도달한다. 이 등산로는 지형상 과거에도 이 산성으로 출입하였던 통로로 보인다.

산성 북쪽입구의 오른쪽은 험준한 절벽과 성안의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들이 합류하여 하나의 큰 내를 이루고 있는 매우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 사람의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

22)《全國遺蹟目錄》, p.87.

23) 文化財管理局, 1977.《文化遺蹟總攬》上, p.426.

태이고 왼쪽은 수십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암괴가 솟아 있는 천연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이에 성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는 매우 커다란 암석들이 자연적으로 좁은 통로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북쪽 출입지의 암반위에는 1986년 동해시에서 세운 "두타산성 안내문" 표석이 있다.

이 북쪽 입구의 좁은 통로를 지나서 남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한줄기의 북쪽 성벽이 동쪽 능선방향으로 이어져 있으며, 또한 서쪽의 계곡 건너편의 능선상에 쌓은 성벽과 함께 북쪽 성벽을 이루고 있다. 즉 이 북쪽 성벽은 성벽을 쌓지 않은 계곡지대를 중심으로 그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성벽이 연결되어 축조된 상태이다.

이 산성으로 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두타산(1,353m)의 북동쪽자락인 쉰움산의 동쪽자락에 위치한 삼척 천은사에서 서쪽계곡을 따라 두타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타고 약 3.5km정도 가면 두타산에서 쉰움산(648m)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에 도달한다. 이 능선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약 600m쯤 내려가면 해발 1032m 정상부에 도달하는데 이곳이 성의 남쪽 입구와 南望臺가 된다.

또 다른 길은 무릉계곡의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로 들어오기전 좌측의 쌍용시멘트 채석장 서쪽부근의 산제당골과 비린내골(피내골) 등에서 각각 능선을 타고 오르면 해발 558m지점에 이르고 다시 서쪽으로 고도가 높아 지면서 이어지는 완만한 산능선을 따라 해발 787m지점에 도달하여 동쪽 입구(추정 東望臺)가 나타난다.

결국 두타산성은 험준한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축조되어 성의 사방 주변 대부분은 급경사와 일부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어 성내로의 진입은 용이치가 않다. 현재 성내로의 진입로는 성의 북쪽 무릉계곡에서 올라오는 두타산 등산로로 이용되는 산길과 성의 동쪽에 있는 쌍용시멘트 서편일대의 산제당골과 비린내골에서 성의 東望臺가 있는 지점으로 올라오는 산능선 길 그리고 삼척 천은사에서 두타산으로 오르는 등산길이라 할 수 있다.

두타산성은 결국 두타산의 북쪽 중턱에 형성된 각 능선들을 따라 축조된, 산의 험준한 천연지세의 잇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산 능선과 여러 계곡을 감싸 두른 포곡식산성의 산성유형에 속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석축산성이다. 성의 구조는 거대한 본성(3960m)이 있고 서쪽(220m)과 북쪽(445m), 동쪽(1,225m)에 각각 외성이 본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내부의 동쪽편에 치우쳐 남-북향의 한줄기 내성을 마련하여 이중의 성벽을 축조한 특이한 구조를 보연준다. 화강암의 천연암벽이 거대하게 노출되어 절벽을 이루는 북쪽 외성의 일부지역은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하고 축조하는지는 않았으나, 이 북쪽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암반층이 일부 노출된 곳은 암반위 또는 암벽사이에

성벽을 축조하고 각 사방의 능선들은 그 바깥쪽에 성벽을 구축하여 전체적으로 연결하였다.

이 두타산성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사다리꼴을 나타내고 있다. 본성을 기준으로 할 때 남쪽의 성벽(1,420m)이 가장 길게 석축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서쪽 성벽(1,230m)이고, 그 다음으로는 북쪽 성벽(810m) 그리고 동쪽 성벽(500m)이다. 성은 북쪽에서 남쪽과 서쪽으로 향한 6개의 크고 작은 계곡을 감싸 거느리고 있으며, 가장 긴 계곡은 성의 남쪽끝인 남망대 우측 약간 아래쪽에서 발원하는 골짜기이고 그를 중심으로 우측에 3개, 좌측에 2개의 골짜기들이 남쪽과 서쪽에서 각각 발원하여 북향한 계곡인 성내의 가장 낮은 해발 565m 지점에서 4개의 골짜기물이 합류하여 큰 내를 이루며 성의 북쪽인 무릉계곡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물이 합류하는 지점의 좌우측은 일부 평탄한 지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근에서 청자 및 백자편, 질그릇편, 기와편 등의 유물들이 수습되고 있어 갈라져 뻗은 산능선이 있어서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산성내 건물지는 각 계곡의 물줄기가 한곳에 만나는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은 남쪽의 입구 정상부에서 뻗어내린 좌우 능선을 따라 성벽이 축조되므로서 남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과 북쪽이 비교적 낮은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성의 가장 높은 지역인 남쪽과 서쪽 그리고 낮은 동쪽에서도 각각 서로를 바라다 볼 수는 있으나 성의 전체 내부는 그 어느곳에서도 관찰되는 않는다. 즉 가장 높은 곳은 안쪽 제1망대로 추정되는 지점인 해발 1,032m이고, 가장 낮은 곳이 해발 530m 정도여서 상대고도가 502m에 달하며, 성 북쪽의 무릉계곡의 하천은 해발 170m~190m내외로 그와는 상대적인 높이가 320~850m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상대적인 고도가 비교적 높고 충분한 지형의 잇점을 이용하여 험준한 지세에 축조되었기에 방어기능에는 매우 유리한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산성의 서쪽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성의 내부를 바라다 볼 수는 없다. 또한 성안에서도 사방의 성안이 모두 관찰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두타산성은 다른 산성들이 일반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가 선택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고도가 매우 높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교통이 매우 불편한 험준하고 높은 산지와 깊은 계곡지역에 천연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치선정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11. 고현성(장안성) [24]

· 소　재　지 : 동해시 심곡동 산 69

· 위치 및 현상 : 강릉-동해간 고속도로를 타고 남하하여 망상을 지나 바로 우측인 서쪽으로 마상천을 따라 약 2km쯤 들어가면 동해공업고등학교가 있다. 산성은 이곳에서 하천 건너편인 북쪽

구릉지(70m)에 위치한다.

이 산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에는 나오지 않다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25]에 "望祥面 深谷里, 國有, 江陵의 東南約八里 深谷里南方 山上에 있음. 土城으로서 주위 約 四百間 城內에 瓦片 散在함. 一般에 古寧城址라 칭함. 廢懸후 寺院이 建立된 일이 있다고 전함" 이라 하였고, 《全國遺蹟目錄》[26]에는 '墨湖邑深谷里, 土城' 이라 하였으며, 《文化遺蹟總攬》[27]에는 "낮은 야산의 능선을 따라 둥글게 쌓은 1km정도의 土·石혼축성으로 長安城 또는 安土城이라 부르는데 鎭將을 두었다고 전하고, 혹은 大津里 봉화대를 지키던 軍兵이 주둔했다고 전해지며 와편이 산재되어 있고 성의 윤곽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臨瀛誌》[28]에는 "그 몇 년전에, '古峴城址, 옛 명주군 墨湖邑 深谷里 西便 산에 있는데 지금은 옛 자취만 보인다. 城의 둘레는 1km정도 築城年代는 확실치 않으나 高句麗때가 아닌가 한다. 土城은 長安城 또는 安土城이라 하는 데 鎭將을 두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조사[29]에 따르면 이 성은 크기가 다양한 사암으로 구축된 순수한 석성으로 확인되었는데 성벽의 높이 1~5m, 상부폭 2~3m, 둘레는 약 600~700m이다. 동·북벽은 붕괴되었으나 서·남벽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남벽의 석축부분 밑에서는 적황색토와 크기가 Coobble이하인 원력이 혼입된 상태로 관찰되고 그 표면 회백색을 보이면서 견고한 점으로 보아 염분이 포함된 판축부로 생각된다. 北門址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높이 3m, 둘레 140cm 정도의 石材門柱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성 안에는 우물자리 1개소가 있고 평탄한 부분은 논, 경사지는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있다. 주민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성 부근에서 반달칼이 수집된 바 있다고 하며, 지금도 토기 및 기와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만(卍)형 문양이 있는 기와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런 기와 조각은 충북 남동부 지방에서도 수집되고 있다.[30]

이 산성은 북서가 높고 남서가 낮은 한국 산성의 특징을 나타내며 수구가 남서에 있고, 그쪽에 약 200평(660㎡)정도 되는 논이 있다. 10여년전까지 성 안에 집과 주민이 있었으나, 지금은 비어 있고, 1000평(3300㎡)정도의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작은 민묘가 있다. 동해고속도로와 나란

---

24)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5) 조선총독부,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p.540.
26) 《全國遺蹟目錄》, p.78.
27)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上, p.447.
28) 강릉시, 1975. 《臨瀛誌》, p.218.
29) 李俊善, 1982, 〈江陵地域의 古代山城〉《地理學》제 25호, p.p.22~23.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上, p.p.353~354.
30) 李在俊, 1976. 《忠北의 기와》유림사, p.p.108~125.

히 달리는 영동선 너머 동해안이 잘 내려다 보인다. 이 성의 축성 연대에 대하여는 고구려 또는 고려초기의 두 견해가 있다고 한다.[31]

12. 용정고성[32]

·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 위치 및 현상 : 관련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성의 유래는 살필 수 없다. 단지《三陟郡誌》[33]에 의하면 "삼척산업주식회사 서쪽 산능선에 석축과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城峙하는 지명이 있으며, 언제 축조했는지 알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상파악은 어렵다.

13. 고성 삼포리 봉수지[34]

· 소　재　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봉수동

· 위치 및 현상 : 삼포리 봉수지는 속초-고성간 7번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대한불교 태고종 반야사 진입로로 진입하여 바로 우측 해발 약 59m 높이의 산 정상에 위치한다. 봉수지의 주변은30~40년생된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봉수지 동편 바로 앞에는 민묘 1기가 자리하면서 봉수지의 외곽 土壘를 파괴한 상태이다.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竹旺面 荀浦里 土木局所管 '荀浦里部落에 東北約五十間(90m)의 山頂에 있음, 약 六間(10m)西方에 石塚 外周에 土壘가 있고 不完全' 이라 하였고,《文化遺蹟總攬》上에는 '女眞 靺鞨族의 侵略을 경계하기 爲하여 築造한 것이라 전하며 長廣 7.27m(24尺), 높이 5.45m(18尺)인 石築壇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다.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三浦里를 荀浦里로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기록으로 보아 삼포리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의 기록으로 보면 1977년에는 원형이 잘 보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조사결과 석단은 3단으로 약 1.5m이고 주변으로 굴러 떨어진 돌들이 흩어져 있다. 봉수지의 주변으로 폭 3m의 토를 만들었으며 土壘의 안쪽에는 화강석을 섞어서 쌓았다.

---

31) 강릉시, 1975.《臨瀛誌》, p.218.
江原日報社, 1975.《太白의 邑面》.
32)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3) 삼척군, 1984.《三陟郡誌》, p.677.
34)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5.《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4. 고성 마차진리 봉수지[35]

· 소　재　지 : 고성군 현내면 마치진리 봉화봉

· 위치 및 현상 : 대진에서 7번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명파리로 넘어가는 쑥고개 우측(동편) 해발 133m의 봉화봉 정상에 위치한다. 해안에 면해 있고 해발고도가 주변지역 보다 높은 곳이어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현재 20~30년 된 아카시아와 같은 낙엽수들이 우거져 있어 유적의 전체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봉수대는 산 정상부를 삭평한 후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조는 정상을 중심으로 봉수대와 봉수대 바깥으로 1차 석축 기단을 두르고 석축기단 바깥으로 방화벽의 용도로 사용된 토루가 둘러져 있다. 따라서 토루1단+석축1단+봉화대의 현 잔존 높이는 약 2.2m, 윗부분의 지름은 약 6m 정도이고, 봉화대 기단 둘레는 약 52m이다. 봉화대 기단과 석축기단과의 거리는 8.4m, 그 둘레는 약 90m정도로 추정된다. 또 석축기단에서 바깥의 토루까지 거리는 9~10m 정도이다. 축조하면서 사용된 석재는 주로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麻次津里部落에 西北 約四百間(727m)의 山頂에 있음. 主位約二十間(36m)石塚의 周에 土壘가 있고 不完全' 이라 하였고, 《문화유적총람(상)》에는 '쑥고개 봉화대라고 불리며 석축의 길이 약 6m, 높이 60cm의 흔적이 남아 있다.' 라고 하였다. 또한 《世宗實錄地理志》와 그 이후의 여러 지리지에는 이 봉수지의 명칭을 술산봉수(戌山烽燧)라 밝히고 있고, 남쪽으로 13km 거리인 정양산봉수(正陽山烽燧, 거진읍 반암리 소재)와 북쪽 고성군의 구장천(仇莊遷)봉수 사이에서 신호전달을 맡았음을 밝히고 있다. 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연변봉수지 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서 토기편과 와편들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병들의 주거시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강원도편-》.

Ⅲ. 於達山 烽燧臺의 歷史的 變遷

이 규 대

1) 烽燧臺의 位置

어달산 봉수대의 위치는 현재 동해시 대진동 24-3번지이며, 조선시대의 행정편제인 면리제 하에서는 강릉대도호부 우계면(羽溪面) 묵진리(墨津里) 이다.

여기서 우계면은 고대 이래로 우계현으로서 강릉대도호부의 임내(任內)인 속현(屬縣)이었다. 조선 국가의 직촌화(直村化) 정책에 따라 임란(壬亂)을 전후한 시기에 우계면으로 편제되었으며, 강릉대도호부의 관문(關門)으로부터 남쪽으로 60~70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36] 그리고 조선후기 우계면은 6개 리로 편제되었으며, 그 중에서 어달산 봉수대가 소재한 묵진리는 편호(編戶) 92호에 남자 172명 여자 403명으로 우계면에서 2번째로 호구가 많은 촌락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파악된다.[37]

2) 봉화로(烽火路)

조선시대의 봉수대는 직봉(直烽)과 간봉(間烽)으로 구분되며, 직봉이 그 근간이 되는 노선이라면 간봉은 그 보조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간의 연결망인 봉수망은《세종실록(世宗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여지도서(輿地圖書)》,《만기요람(萬機要覽)》,《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등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봉수망이 정리된 地圖가 작

---

36) 《關東邑誌》6, 江陵府誌, 坊里.
'羽溪面 自官門南距 墨津里 · 北洞里 · 縣內里 · 川南里 六十里 山溪 · 梧谷里 七十里.'

37) 《輿地圖書》, 江原道 江陵, 坊里.
'墨津里 自官門南距六十里 編戶九十二男一百七十二口女四百三口 北洞里 自官門南 距六十里 編戶五十八男一百二十四口女二百四十七口 縣內里 自官門南距六十里 編 戶五十九男一百二十四口女一百六十八口 山溪里 自官門南距七十里 編戶一百三十 六男二百八十四口女三百三十九口 川南里 自官門南距六十里 編戶五十五男九十八 口女一百八十四口 梧谷里 自官門南距六十里 編戶五十二男一百十八口 女二百五口.'

성되는 성과가 이루어 내고 있다.

강원도 연해지역의 봉수대는 《경국대전》과 《증보문헌비고》에서 정리된 5개 路線[38]상에서 직접 파악되지 않음으로서 간봉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봉수망 지도상에도 이 지역의 봉수대와 봉수망은 표기되지 않았다. 이로서 이 지역의 봉수대는 직봉간을 연결하는 보조노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봉수대와 봉수망은 읍지류를 이용하여 파악될 수 있으며, 여기서 어달산 봉수대를 중심으로 강릉대도호부 관내의 봉수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몇 가지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권 153, 地理志, 烽火五處.

於乙達 在任內羽溪縣南 南准三陟地廣津 北准吾斤.

吾斤 北准府地海令.

所伊洞 在府東北隅 南准海令 北准沙火.

沙火 北准連谷注乙文.

注乙文 北准襄陽任內洞山陽也.

《新增東國輿地勝覽》44, 江陵大都護府 烽燧.

注文山烽燧 北應襄陽府襄野山 南應沙火山

沙火山烽燧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所同山烽燧 在府東七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海靈山烽燧 南應吾斤山 北應所同山

吾斤山烽燧 在羽溪縣北二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於達山烽燧 在羽溪縣南三十里 南應三陟府廣津山 北應吾斤山.

《關東邑誌》6, 江陵府誌 烽燧. 今廢.

注文津烽 自府北距四十里 北應襄陽府襄野山 南應沙火山 今廢焉.

沙火山烽 自府北距二十里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今廢焉.

---

38) 《經國大典》卷4, 兵典, 烽燧.

'木覓山烽燧 東第一准永安道江原道來楊州峨嵯山烽燧 第二准慶尙道來廣州穿川嶺烽 第三准平安 道陸路來毋岳東峰烽燧 第四准平安道黃海道海路來毋岳西峰烽燧 第 五 准忠淸道全羅道來陽川開花山烽燧.'

所同山烽 自府東距十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今廢焉.

海靈山烽 自府南距三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所同山 今廢焉.

於達山烽 自府南距八十里 南應三陟廣津山 北應五斤山 今廢焉.

위의 자료에 의거해 강릉도호부 관내의 봉화로를 정리하면, 삼척 광진산 봉수대↔어달산 봉수대↔오근산 봉수대↔해령산 봉수대↔소동산 봉수대↔사화산 봉수대↔주문진 봉수대↔양양부 양야산 봉수대로 이어지고 있다.[39] 그리고 이러한 봉수망은 남북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기간망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북쪽으로는 회양도호부(淮陽都護府)의 소산봉수(所山烽燧)를 거쳐 경흥(慶興)↔목멱산(木覓山)의 제1거(第一炬)로 이어지며,[40] 남쪽으로는 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의 대소산봉수(大所山烽燧)를 거쳐 동래(東萊)↔목멱산의 제2거(第二炬)로 이어지고 있다.[41]

3) 어달산 봉수대의 치폐(置廢)

어달산 봉수대의 치폐에 관한 개별적 사실을 밝히기는 자료의 한계로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영동지방의 각종 읍지(邑誌)에서 "以上烽燧 皆新羅所設 今廢"[42] "沿海諸邑皆有烽臺 鷄林古都之事 今皆廢之"[43]라고 하여 신라 이래로 봉수가 설치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의존해 강원도 연해지역의 봉수대의 설치시기를 삼국시대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에서는 봉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던 일반적인 사실에 의거해 이 지역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이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강원도 연해지역의 봉수대가 폐지되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

39)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강릉대도호부 관내의 봉수처는 "烽火五處"라 하여 5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봉화로를 파악하는 내용에서 드러나듯 해령산 봉수대가 누락된 채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關東邑誌》에서도 5곳으로 정리되고 있으나, 봉화로를 정리한 내용에서 오근산 봉수대가 누락된 것이 파악된다. 이로서 강릉대도호부 관내의 봉수처는《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와 같이 6곳으로 파악되며, 이후 편찬되는 읍지에서 모두 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40)《經國大典》卷4, 兵典, 烽燧.
'木覓山烽燧 第一准永安道江原道來楊州峨嵯山烽燧.'

41)《經國大典》卷4, 兵典, 烽燧.
'木覓山烽燧 第二准慶尙道來廣州穿川嶺烽燧.'

42)《關東邑誌》襄陽府, 烽燧.

43)《峴山誌》烽燧.

(A) 烽燧三處 初屬襄陽大浦堡 癸亥反正後 廟議以關東絶倭警革 大浦堡所屬烽燧戍卒皆罷.[44]

(B) 李朝宣祖丙申 承旨韓浚謙 請依明朝例 設擺撥以傳邊書 騎撥每二十五里置一站 步撥每三十里置一站 高宗乙未 廢各驛撥站設郵遞 依泰西之制.[45]

(C) 高荊山按本道時 以關東無海虞 故啓罷.[46]

(D) 烽燧津古有之 而壬辰亂後革罷云.[47]

이 기사에 의하면, (A)에서는 인조반정(仁祖反正)(1623) 이후에 왜(倭)에 대한 경계가 근절되면서 봉수가 폐지되었으며, (B)에서는 선조 29년(1596)에 승지 한준겸의 요청으로 파발제가 도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C)에서는 해우가 없어짐으로서 관찰사 고형산의 서계로 관동지방의 봉수가 혁파되었고, (D)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혁파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개별적 사실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그 공통점으로 파악되는 내용으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강원도 연해지역의 봉수대가 폐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근거에 의거해 어달산 봉수대를 비롯한 이 지역의 봉수대가 폐지되는 시기를 임진왜란 이후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4) 연대(煙臺)의 축조(築造)

조선시대 봉수대는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경봉수(京烽燧), 내지봉수(內地烽燧), 연변봉수(沿邊烽燧)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연대(煙臺)의 축조방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연해지역의 봉수는 연변봉수로 구분되며, 이 지역의 연대 축조방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거(典據)가 될 수 있다.

(A) 煙臺四面下廣 每一面二十尺 高三十尺 皆用布帛尺定制 改築四面 皆置坑坎[48]

(B) 沿邊各處煙臺造築 高二十五尺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 外掘塹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 設木　長三尺 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49]

---

44) 《關東邑誌》杆城郡誌, 烽燧.
45) 《江原道誌》卷5, 通信.
46) 《江原道誌》卷3, 古蹟, 橫城.
47) 《高城郡邑誌》烽燧.
48) 《世宗實錄》卷80, 20년 1월 庚子.

(A)와 (B)는 세종 20년과 29년에 병조(兵曹)에서 마련한 연대축조의 규식(規式)이다. (A)에서는 연대의 형태를 석축(石築)에 방형(方形)으로 규정하고, 각 면 20척으로 아래 부분을 넓게 하고 높이는 30척이다. 그리고 각 면의 둘레에는 갱감(坑坎)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에서는 연대의 형태를 석축에 방형으로 규정하고, 높이 25척, 둘레 70척, 연대 아래 4면은 각 30척의 규모이다. 연대의 바깥쪽으로 참호를 파고, 참호의 깊이와 넓이는 각 10척으로 한다. 또한 참호의 외면에는 길이 3척으로 윗 부분을 예리하게 하여 목익(木杙)을 설치하고, 목익은 너비 10척으로 한다. 연대의 윗 부분에는 가옥(假屋)을 설치하고 병기와 용수, 기명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의거할 때, 연대의 형태는 석축에 방형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그 시설은 연대의 규모, 목익과 참호의 설치, 가옥의 조성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연대의 규모는 후대의 기록인 (B)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연대의 아래 부분 4면은 각 30척으로 터를 잡고, 높이 25척에 둘레는 70척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목익과 참호의 조성에서 참호는 연대의 바깥쪽에, 목익은 참호의 바깥쪽에 조성한다. 참호의 깊이와 너비는 각 10척으로 하고, 목익은 3척으로 윗 부분을 예리하게 하여 너비 10척으로 조성한다.

다음으로 연대의 위에는 가옥과 연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옥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10일 마다 상체(相遞)되는 봉군의 수직(守直)과 각종 장비와 용품이 보장되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연통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거화법을 염두에 둘 때 5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5개의 연통은 조선초기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목재를 이용한 길고(桔槹)의 형태로 제작하거나,[50] 석축으로 연굴(烟窟)을 제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52] 다만 시기적으로 본다면 후자의 경우가 적당할 것이고, 어느 경우이던 5개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5) 봉군(烽軍)과 그 활동

봉수는 변경의 급보를 중앙에 전달하는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통신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의 요체는 거화법(擧火法)일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경국대전》에서 그 근거가 규정되고 있다. 즉, "烽燧 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五員告本曹 外則伍長告鎭

49) 《世宗實錄》卷150, 29년 3월 丙寅.
50)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韓國의 城郭과 烽燧》,1989. P.602 참조.
5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韓國의 城郭과 烽燧》,1989. P.747 참조.

將"[52]이 그것이다. 적군의 상태를 후망(堠望)하여 그 상태에 따라 거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즉 적정을 살펴서 거화하거나, 상응하는 봉수로부터 거화된 내용을 이어가는 역할은 봉군의 역(役)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군은 오장(伍長)[53]과 군인(軍人)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군액(軍額)은 봉수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즉 "木覓山 每所 軍四人 伍長二人, 沿邊 則每所 軍十人 伍長二人, 內地 則每所軍六人 伍長二人".[54] 이를 준거로 강원도 연해지역의 봉군의 군액은 오장 즉 감고가 2명, 군인 즉 봉졸(烽卒)이 10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상하(上下) 양번(兩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에 임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55] 유사(有事)시에는 감고가 소재관에게 보고하고 무사(無事)시에는 매 10일마다 관에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6] 그리고 이들은 봉수처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차출하며,[57] 이들에게는 일체의 다른 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봉수에 전담하여 그 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8] 이로서 어달산 봉수대의 봉군은 우계면 묵진리의 거주민들에게 부여된 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이 철저하게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상[59]·벌칙[60]이 마련되고 있었다.

《經國大典》卷4, 兵典, 烽燧.

烽燧 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五員告本曹 外則伍長告鎭將.

---

52) 《經國大典》卷4, 兵典, 烽燧.

53) 《大典會通》卷4, 兵典, 烽燧.
'(續) 烽燧煙臺所在烽軍等 毋定他役專爲候望 勤幹品官各四人 別定監考.'

54) 《經國大典》卷4, 兵典, 烽燧.

55) 《世宗實錄》卷114, 28년 10월 庚子.
'各道沿邊煙臺一所 定烽火軍十名 監考二名 分爲上下番.'

56) 《世宗實錄》卷150, 29년 3월 丙寅.
'烽火 有事則監考卽告于其官 無事則每十日一告傳報 監司每四季月 移牒本曹 以憑 後考 監考及看守人勤慢 監司守令 無時考察 軍器點考 敬差官 亦並檢覈啓聞.'

57) 《經國大典》卷4, 兵典, 烽燧.
'軍及伍長 竝以烽燧近處居人差定.'

58) 《大典會通》卷4, 兵典, 烽燧.
'(續) 烽燧煙臺所在烽軍等 毋定他役專爲候望 勤幹品官各四人 別定監考 分二番相 遞晝夜檢擧.'

59) 《世宗實錄》卷150, 29년 3월 丙寅.
'監考勸謹者 每六年一次散官職除授 烽火海望人 能告事變捕賊者 依續六典敍用行 賞 其餘名人 依船軍例計其到宿 差海領職.'

60) 《大典會通》卷4, 兵典, 烽燧.
'或有絶火處 守令決杖八十 監考杖一百 色吏烽軍杖一百 極邊充軍 竝除收贖決杖 賊到處不報火峰卒依法處斬後 啓聞 僞擧烽火者 勿論煙臺與他處 竝用一律 無事 時闕點者 勿論軍官監考烽軍 各別從重決棍 (增)擧僞峰者不待時斬 近處放火者 待 時斬.'

木覓山烽燧 第一准永安道江原道來楊州峨嵯山烽燧

第二准慶尙道來廣州穿川嶺烽燧

第三准平安道陸路來毋岳東峰烽燧

第四准平安道黃海道海路來毋岳西峰烽燧

第五准忠淸道全羅道來陽川開花山烽燧

本曹定人候望 翌日早晨 告承政院以啓 若有變則 雖夜則報

木覓山 每所 軍四人 伍長二人

沿邊 則每所 軍十人 伍長二人

內地 則每所 軍六人 伍長二人

軍及伍長 竝以烽燧近處居人差定 或雲暗風亂烟火 不通之時 烽燧軍次次馳報.

《世宗實錄》卷80, 20년 1월 庚子.

議政府據兵曹呈啓…煙臺之設 所以候賊也 今閭延等處各官 造築煙臺 未經一年 或致傾 專是監築官吏不用心也 煙臺四面下廣 每一面二十尺高三十尺 皆用布帛尺定制 改築四面 皆置坑坎 使五人持兵器火砲 十日相遞 晝夜候望 如有擅離者 依律痛懲 沿邊各口子 造築石堡時 敵臺甕城及煙臺見樣 令修城典船色圖畵 下送都節制使憑考監築 從之.

《世宗實錄》卷150, 29년 3월 丙寅.

議政府據兵曹呈啓 沿邊煙臺造築之式 腹裏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勸勵完護之條 參酌廢鍊後錄

一.沿邊各處煙臺造築 高二十五尺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 外掘塹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 設木 長三尺 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 看望人十日相遞守之 新舊間絶粮時 所在官及監司節制使隨宜補乏.

一.監考及烽火海望人戶貢賦外 雜役一皆 免.

一.監考勸謹者 每六年一次散官職除授 烽火海望人 能告事變捕賊者 依續六典敍用行賞 其餘名人依船軍例計其到宿 差海領職.

一.腹裏烽火 非沿邊煙臺之比 勿築臺於前排設峰頭 除地築烟竈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且 以垣墻 以避惡獸.

一.烽火 有事則監考卽告于其官 無事則每十日一告傳報 監司每四季月 移牒本曹 以憑後考 監考及看守人勤慢 監司守令 無時考察 軍器點考 敬差官 亦並檢覈啓聞.

從之.

《**大典會通**》卷4, 兵典, 烽燧.

《經國大典》은(原),《續大典》은 (續),《大典通編》은 (增), 새로이 보충된 것은 (補)로 표기하고 있다.

(續) 烽燧煙臺所在烽軍等 毋定他役專爲候望 勤幹品官各四人 別定監考 分二番相遞晝夜檢擧

或有絶火處 守令決杖八十 監考杖一百 色吏烽軍杖一百 極邊充軍 竝除收贖決杖

賊到處不報火峰卒依法處斬後 啓聞

僞擧烽火者 勿論煙臺與他處 竝用一律

無事時闕點者 勿論軍官監考烽軍 各別從重決棍 (增)擧僞峰者 不待時斬 近處放火者 待 時斬

(增) 木覓山烽燧將 忠順衛革罷之代 以禁軍中祿厚者 輪回守直

木覓毋岳兩山烽軍戶保 竝(戶 三十戶 每戶各給保三名)各一百二十名 分作二十四番(每番五名立番 六日替)

烽臺設標定界 毋論僞烽放火等事 在百步內者 本曹句管 百步外者 該營當之

烽臺近處 禁淫祀祈禱 犯者 地方官以制書有違律

《**萬機要覽**》**軍政篇, 烽燧**. 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守直禁軍告兵曹 外則伍長告鎭將…木覓山每所軍四人伍長二人 沿邊則每所軍十人伍長二人 內地則每所軍六人伍長二人 軍及伍長 並以烽燧近處居人差定…第一炬…間烽之只準營邑鎭 而止者不盡錄…已上直烽一百二十處 間烽六十處.

Ⅳ. 遺蹟의 位置 및 周邊環境

어달산 봉수대가 위치한 곳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산 24-4번지인 어달산 정상부이며, 경 · 위도상으로는 북위 37°35′, 동경129°05′지점이다.〈그림 2〉 어달산 봉수대는 묵호 시가지에서 7번국도를 따라 북상하다 동해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길로 약 2km정도 가면 좌측으로 어달산 봉수대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온다. 이 등산로를 타고 약 10분정도 걸어 올라가면 정상에 어달산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고, 이 등산로를 따라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망상의 노봉마을까지 다다른다.

어달산 봉수대가 위치한 곳은 태백산맥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동해 바다쪽으로 1km정도 돌출된 지역으로,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뻗어 있는 해발 185m의 산 정상부의 동쪽 끝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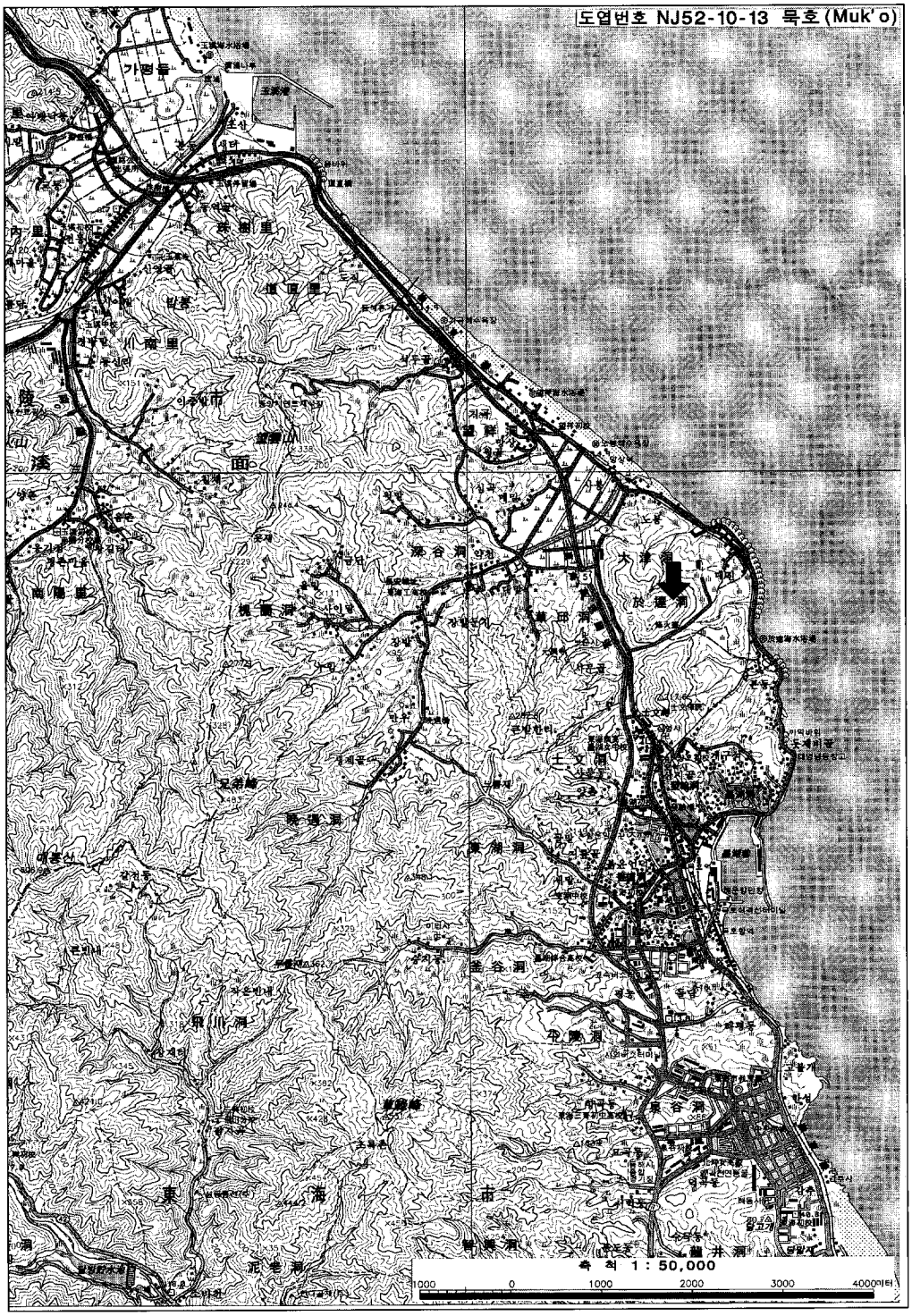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동해바다는 물론 북쪽으로 망상뜰과 망상해수욕장〈사진 3〉, 옥계 한라시멘트, 그리고 강릉 심곡리까지 조망할 수 있으며, 남쪽으로는 묵호 시가지, 송정동 금강산 여객터미널과 삼척시까지〈사진 2-②〉, 서쪽으로는 태백산맥 일대와 동해지역에서 영서지역으로 이어주는 오랜 교통로인 백봉령 정상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다.〈사진 2-①〉 따라서 연변봉수지의 입지조건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달산 봉수대의 북서쪽으로는 현재 마상천을 중심으로한 망상뜰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이 뜰의 서쪽 끝 부분에는 장안성지[61]가 위치하고 있다.

이 장안성지는 어달산 봉수대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져 있고 어달산 봉수대와 같이 망상뜰의 생활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어떤 연관성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조선시대 교통로는 묵호에서 사문치를 넘어 심곡동의 장안성 앞을 지나 강릉시와 동해시의 경계인 옷재를 넘어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로 연결되는 교통로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처럼 연변봉수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어달산 봉수대는 조사전 50cm×30cm×25cm정도 크기의 불규칙한 할석을 이용하여 쌓여 있었다.〈사진 4〉 크기는 북벽 양쪽 모서리의 각을 죽인(크기: 가로750cm×세로780cm×높이220cm)방형의 기단을 마련하였고, 석축은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씩 내만하면서 막쌓기를 하여 곳곳이 무너지고 구멍이 많이 나 있었다.

---

61)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6.《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그림2〉 어달산 봉수대 위치도

봉수대 주변으로는 호와 연대 사이에 방형의 보호 철책을 설치하였고 철책밖에는 토호가 비교적 잘 남아 있었으며 호 외측으로는 토루가 약간씩 관찰되었다.

조사전 봉수대지 주변에는 풀과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동남편에는 1971년 정비복원을 표시한 표석이 세워져 있었다. 봉수대가 위치한 어달산은 석탄, 갈철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매장하고 있는 산으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범바위' 로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을 정도로 돌이 많은 산이다. 한편 봉수대가 인접한 동편 평지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사용할 정도로 비교적 편평한 곳이 펼쳐져 있다.

Ⅴ. 調査內容

1. 發掘調査 經科

현재 복원된 어달산 봉수대는 1971년 11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 13호로 지정되면서 복원되었으나 정확한 고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복원되어 봉수대의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고적보물조사자료(朝鮮古蹟寶物調査資料)》에 '토루(土壘)와 봉화대지(烽火臺地)가 겨우 있었다' 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어달산 봉수대의 발굴조사는 봉수대 원형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밝혀내고 향후 정비 · 복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앞서 어달산 봉수대의 문헌조사와 함께 수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자료를 정리하여 어달산 봉수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현장 예비조사는 현재 남아 있는 봉수대의 현황파악과 주변의 건물지와 담장지 등 어달산 봉수지와 관련된 유적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현 어달산 봉수대의 남쪽 약 1km지점의 해발 217m정상에서 뜻밖에도 조선시대 초기의 봉수터로 추정되는 지역을 발견하였다. 〈사진 26-②〉 이곳은 현재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소를 세울 때 부지 정리 작업을 하면서 상당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27〉 주변에는 50cm×30cm×30cm크기의 할석들이 불규칙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가운데 부분과 주변지역에는 조선시대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편 및 자기편이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조선시대 초기에 이 자리에 봉수대가 위치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2. 調査內容

발굴조사는 먼저 어달산 봉수대의 주변지역과 현재 남아 있는 봉수대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한 후, 주변지역의 풀과 잡목을 제거하였다. 또한 전체조사를 위한 측량 기준점을 연대부 남벽 중앙에 설정한 후 기준점을 중심으로 10m×10m크기의 그리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연대부와 호, 토루 등에 대한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한 후 1971년 복원된 현재의 석축 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하부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체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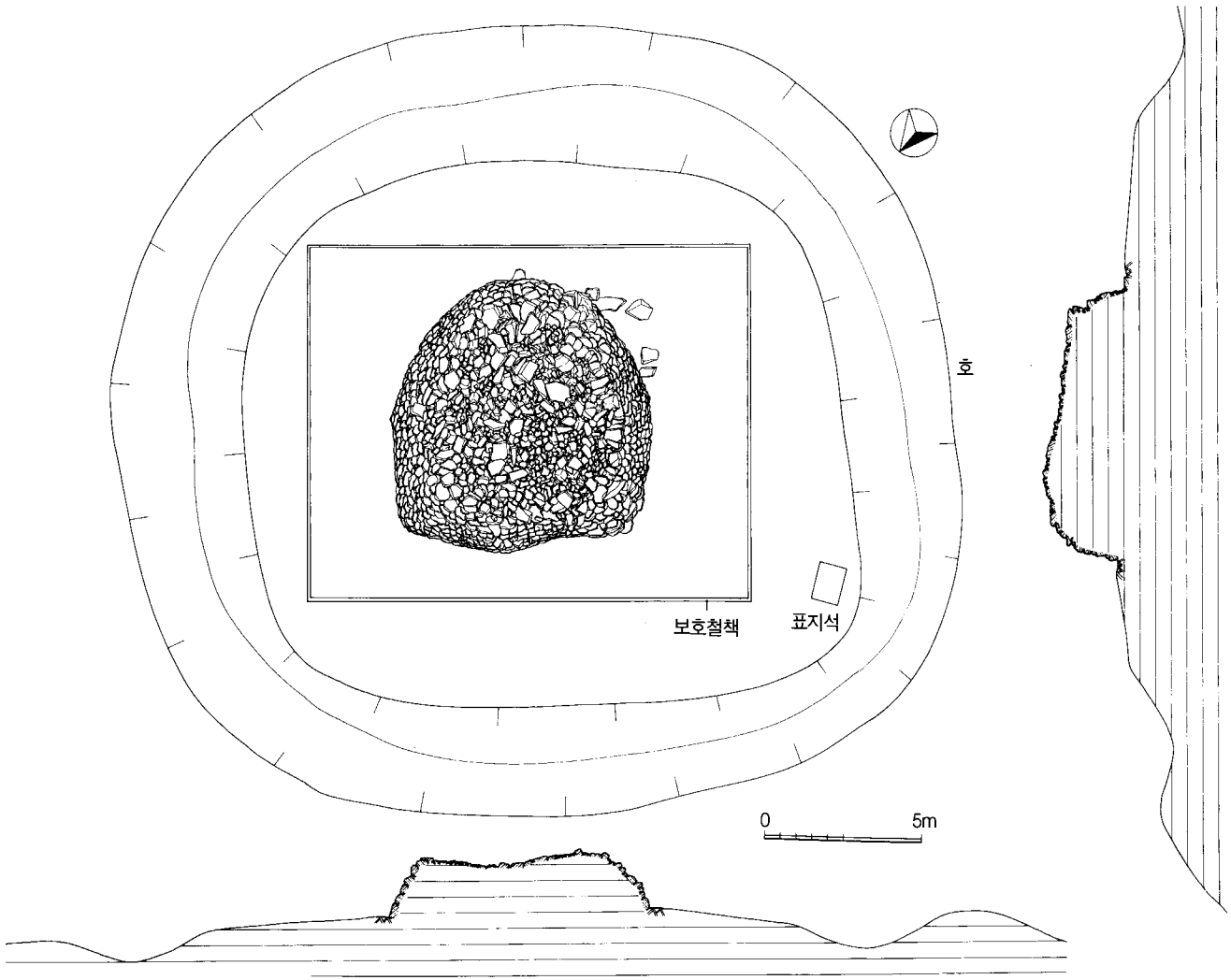
석축의 해체작업은 특별히 주문 제작한 들것〈사진 8〉에 연대의 할석을 하나씩 옮겨 담은 후 중장비를 이용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시간적 절약을 시도하였으며, 옮겨진 석재는 후일 정비복원시 재활용할 목적으로 전체를 수습하여 봉수대 서쪽의 평탄면에 별도로 쌓아 보존하였다.

석축을 50cm정도 걷어낸 결과, 가장자리에는 큰 할석을 놓고 안쪽에는 작은 할석(20cm×20cm)을 무질서하게 채워 넣은 유구가 노출되었으며, 할석 사이에는 비닐과 페인트가 묻은 할석들이 보이기도 하였다.〈사진 9〉

연대를 2/3정도 제거하자 석축 가운데 부분의 할석들 사이에서 숯과 재가 섞여 있는 검은 모래가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1971년 복원된 북편과 남편, 석축 안쪽 일부에서 비교적 긴 할석으로 세로쌓기한 할석이 일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사진 10〉 이에 대하여 1971년 복원되기 전의 유구로 판단하여 일시 작업을 중단하고 검토에 들어간 결과, 모래 속에서 백자조각이 출토되는 한편 형태가 문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형이고, 노출된 석재 역시 비교적 정연하고 규칙적이며, 숯과 같은 유기물질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봉수대로 일단 판단하였다.

이에 1971년 복원된 석축 안쪽의 조선시대 석축을 제외한 바깥쪽의 교란된 석축을 제거하였고, 그 지점에서 방형의 기단 석축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축의 기단부가 정연하지 않은 관계로 보다 정확한 근거를 얻고자 남쪽 일부에 탐색pit를 넣은 결과 현재 노출된 기단석이 아래로 계속 연결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동·서·북쪽지역의 탐색pit 내에서도 기단석 일부분이 퇴적되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대 주변의 퇴적지형을 제거한 결과 남벽 570cm·서벽 600cm·북벽 630cm·동벽 520cm크기의 북벽이 약간 벌어진 형태의 방형 연대부가 노출되었다.〈사진 11〉

이러한 연대의 기단부 방형석축의 조사 이후 연조 및 연통 등의 시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연대를 4등분하여 동남편 1구역에 대한 하강작업을 실시하여 방형석축의 내부를 확인한 결과, 내부의 할석



〈그림3〉 어달산 봉수대 해체전 실측도

들이 불규칙하게 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에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었다.〈사진 13〉

또한 모래가 끝나는 면은 진흙과 연결되고 있었는데, 이 진흙을 10cm정도 걷어내자 바로 암반층이 노출되었다.〈사징 15-①〉 이는 방형의 기단부를 기반암 위에 축조한 후 안쪽의 불규칙한 면을 진흙으로 평탄하게 조성하여 기단석을 축조한 방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래와 숯이 바닥에 가까운 중앙부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연조시설의 유무, 연대의 낮은 높이, 특별한 시설의 유무 등에 대한 문제 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의 봉수대 시설과 1971년 복원된 형태를 비교해 볼 때, 동 · 남벽 1, 2단은 조선시대 기단 위에 그대로 쌓아올렸으나 서 · 북벽은 조선시대 기단석 밖으로 새로 쌓아 올려 복원한 것으로, 남벽과 동남벽 일부만이 원래의 기단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북 모서리와 연접하여 연대부로 오르기 위한 출입구의 기단석으로 보이는 할석이 ㄱ자형태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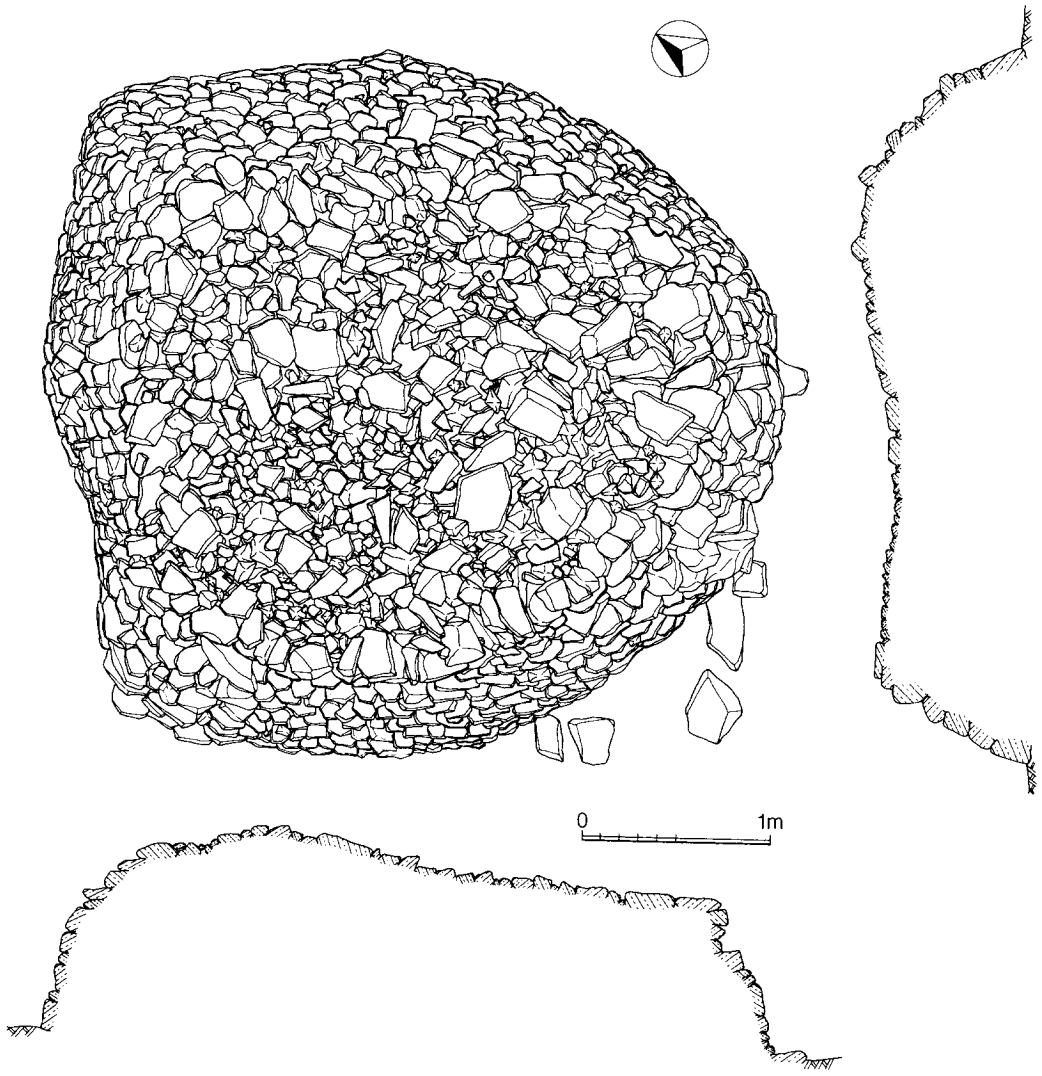
연대 외곽에 보이고 있는 호는 1971년 복원시에 함께 복원된 것으로 보일 만큼 다른 시설들에 비해 비교적 잘 남아있었다. 따라서 연대 기단의 사면 중앙에 폭 4m 크기의 트렌치를 호 밖의 지점까지 연결하여 토루와 호를 조사하였다.〈사진 20〉 조사결과 방형석축 기단은 자연암반 위에 기단을 쌓아 올린 것에 비해 호는 U자형으로 자연 암반층을 파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사진 24〉 또한 동 · 서 · 남 · 북 네벽의 트렌치에서 모두 불규칙한 할석들이 호 안의 경사면에 밀착하여 노출되었는데 이는 보호축대로 추정된다.〈사진 20-②〉

또한 기록에 보이는 건물지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연대의 동쪽과 서쪽으로 넓게 형성된 대지에 동쪽으로 폭 2m · 길이 30m, 서쪽으로 폭 2m · 길이 15m 크기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사진 19〉 그러나 건물터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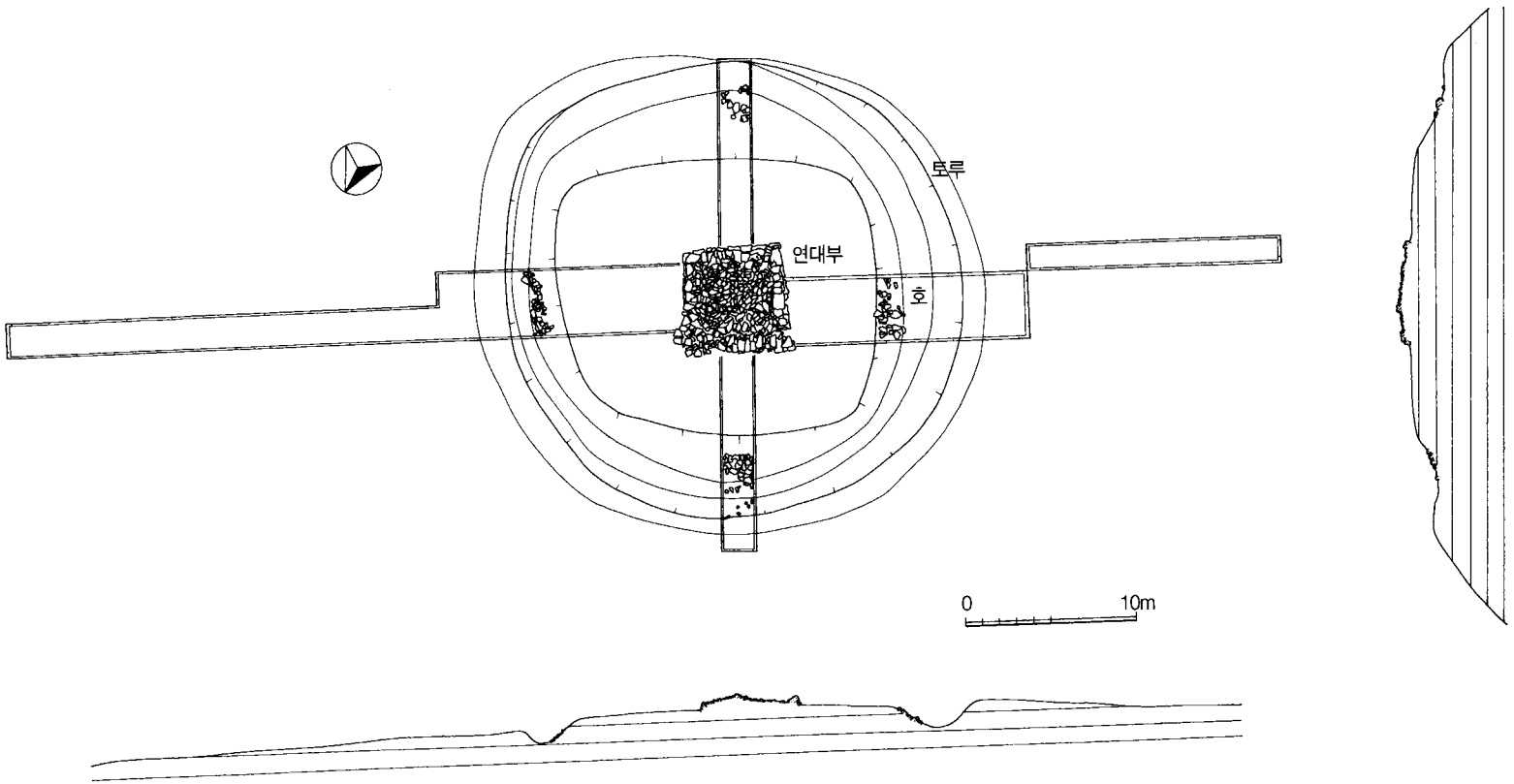
1) 煙臺部

조사 전 봉수대는 동-서 750cm · 남-북 780cm · 최고 높이 220cm 크기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약간 낮은 부정형에 가까운 형태였고, 조사 후에는 남벽 570cm, 서벽600cm, 북벽 630cm, 동벽520cm 크기의 북벽이 약간 넓은 형태의 방형 연대부가 노출되었다.〈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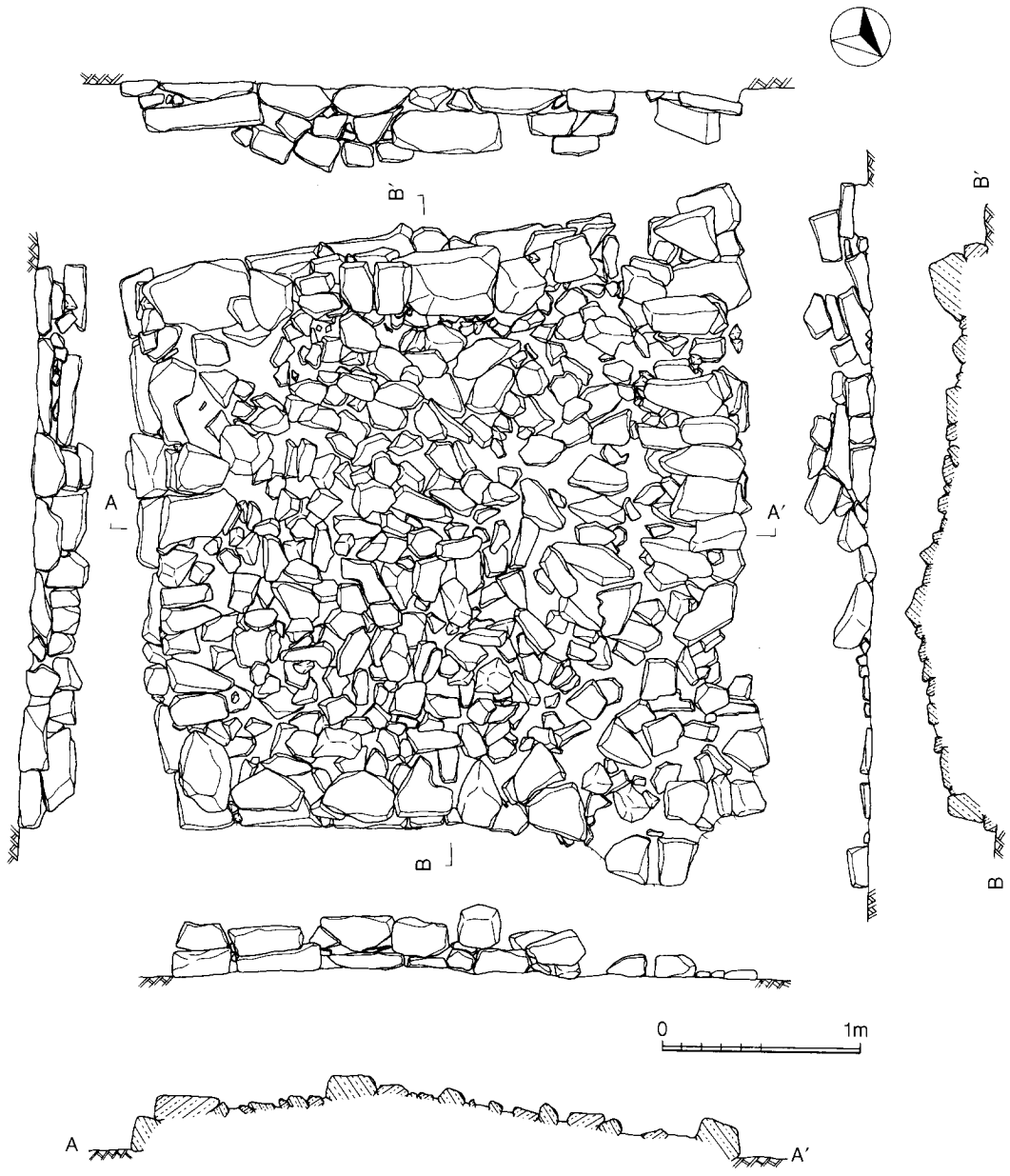
연대부 조사 결과, 1971년 복원된 석축 밑에서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2~3단 정도의 기단만이 남아 있었는데 기단이 2~3단만이 남아있는 것이 1971년도 복원시 더 크게 쌓기 위하여 일부러 무너뜨린 것인지 아니면 무너져버려 3단까지만 남아있거나, 축조시 3단까지만 쌓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림4〉 어달산 봉수대 해제전 연대부 실측도



〈그림5〉 봉수대 발굴조사 후 실측도



〈그림6〉 어달산 봉수대 발굴조사 후 연대부 단면도 및 측면 입면도

노출된 조선시대의 기단은 암반 바로 위에 불규칙한 할석을 이용하여 외벽쪽만 면을 맞추어 1단에서 2단으로 올릴 때에는 안쪽으로 10~20cm씩 들여쌓기를 하였다. 〈사진 16-②〉 북벽과 서벽에서는 세로쌓기한 부분도 일부 확인되었으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아 기단부는 불규칙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기단의 안쪽은 암반 위에 두께 10cm이하의 진흙으로 바닥을 고른 후 기단석보다 작은 할석으로 쌓았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무너져 내린 상태이므로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숯과 모래가 유구의 가운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노출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것으로 보아 가운데 부분에서 주로 거화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대의 동북모서리에는 연대에 오르기 위한 출입구 기단석으로 보이는 기단이 일부 확인되어, 연대의 출입구가 서북쪽으로 마련되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9-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달산 봉수대의 연대부는 방형의 기단으로 동북모서리에 출입구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연기나 불을 피우던 연조의 흔적은 확인 할 수 없었지만 연대 내부에 숯과 재가 남아 있는 것〈사진 16-①〉으로 보아 윗 부분에 연조가 있었으나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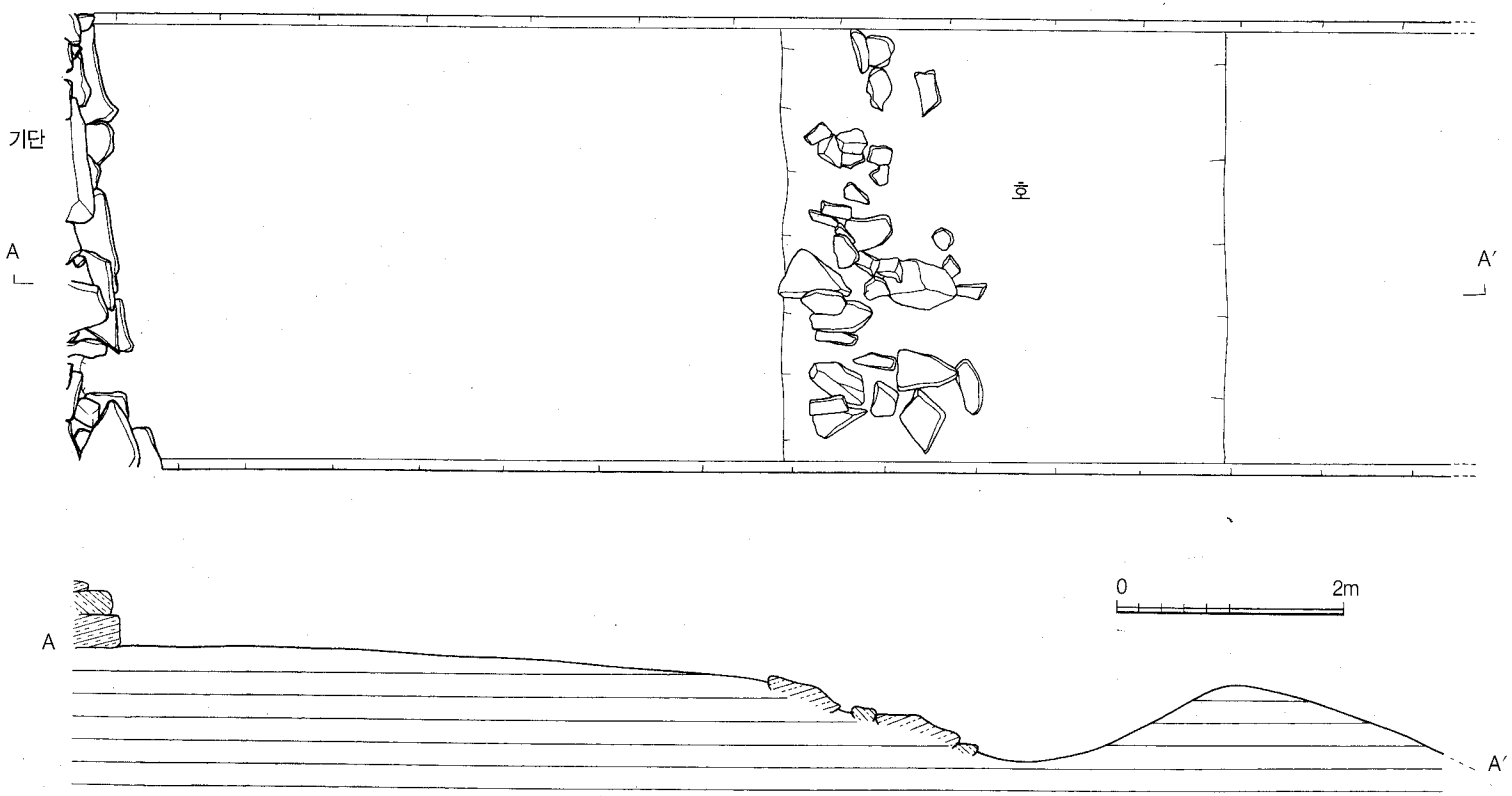
2) 塹壕

조사 전 연대를 둘러쌓고 있던 호는 다른 시설에 비해 유난히 잘 보존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1971년 복원시 함께 복원된 부분으로 추측하였으나, 조사결과 호는 원상태로 1971년에 복원된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사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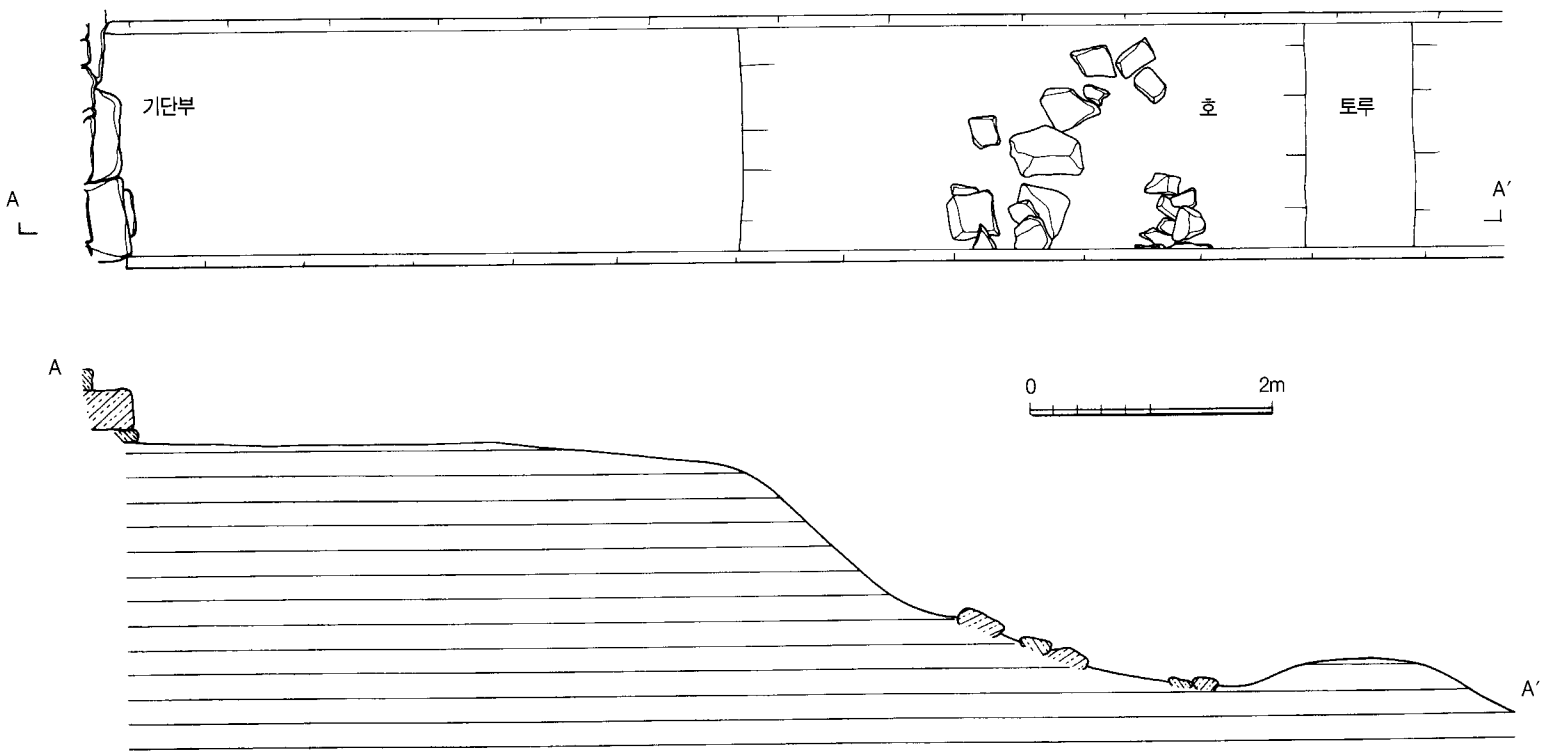
호는 연대를 중심으로 평균 5~6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연지형을 따라 말각방형에 가까운 원형으로 축조되었다. 〈사진 24-①〉 호의 북쪽과 남쪽은 지형의 연결상 잘 남아있는 반면, 동 · 서쪽은 급경사가 이어지기 때문에〈사진25-②〉 호의 외측 벽을 제대로 축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호의 전체 규모는 동-서 29m · 남-북 27m이고, 호의 폭은 3~4m · 깊이는 80~130cm이다.

호의 설치는 연대를 기준으로 남 · 북쪽은 폭 3~4m · 깊이 80~90cm로 풍화암반을 파내어 U자형으로 만든 후, 호 안쪽 경사면에 할석을 불규칙하게 붙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사진 21-②〉 바닥에도 호 안쪽에서 흘러내린 할석들이 흩어져 있었고 백자 조각이 함께 노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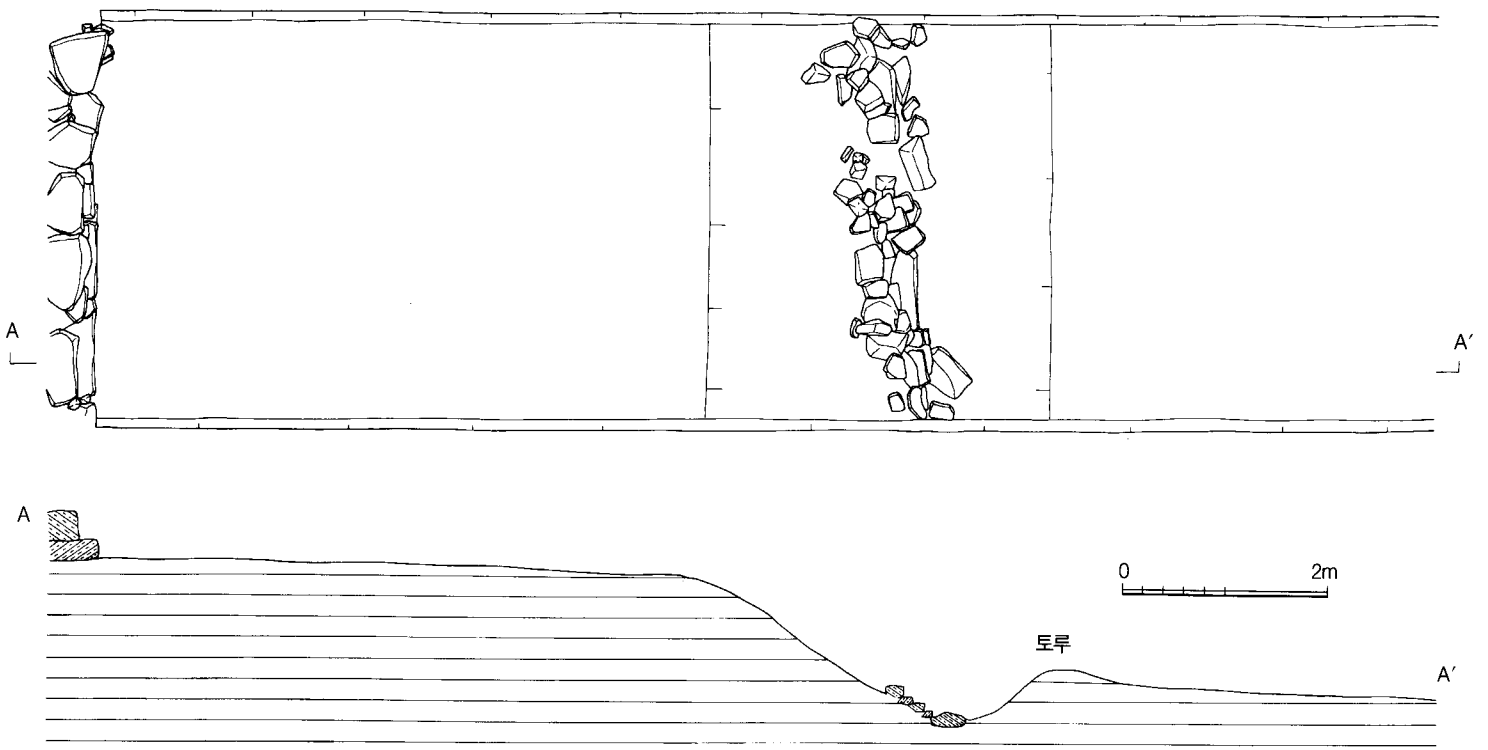
남 · 북쪽 호는 지형상 급경사가 이어지는 부분이므로 동 · 서쪽 호보다 깊이 파지 않고 자연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3-①〉 따라서 서쪽 외측 벽은 일부 남아 있으나, 남쪽 외측 벽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남 · 북쪽벽은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연대쪽은



〈그림7〉 어달산 봉수대 서쪽 트렌치 실측도



〈그림8〉 어달산 봉수대 남쪽 트렌치 실측도



〈그림9〉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실측도

높고 외측벽은 낮게 만들어 남쪽 200cm, 북쪽 180cm정도의 고저차가 나타나 호의 기능은 충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여기에서도 호 내벽에 할석을 일부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연대부 동북 모서리에서 연대로 올라가는 출입구시설로 추정되는 기단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폭 3~4m · 깊이 0.8m 이상의 호를 건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호 외부로부터 토루와 호를 지나 봉수대 안쪽으로 이어지는 출입시설을 마련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출입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호를 메워 지나다닌 흔적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다리와 같은 간단한 가교시설을 이용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3) 土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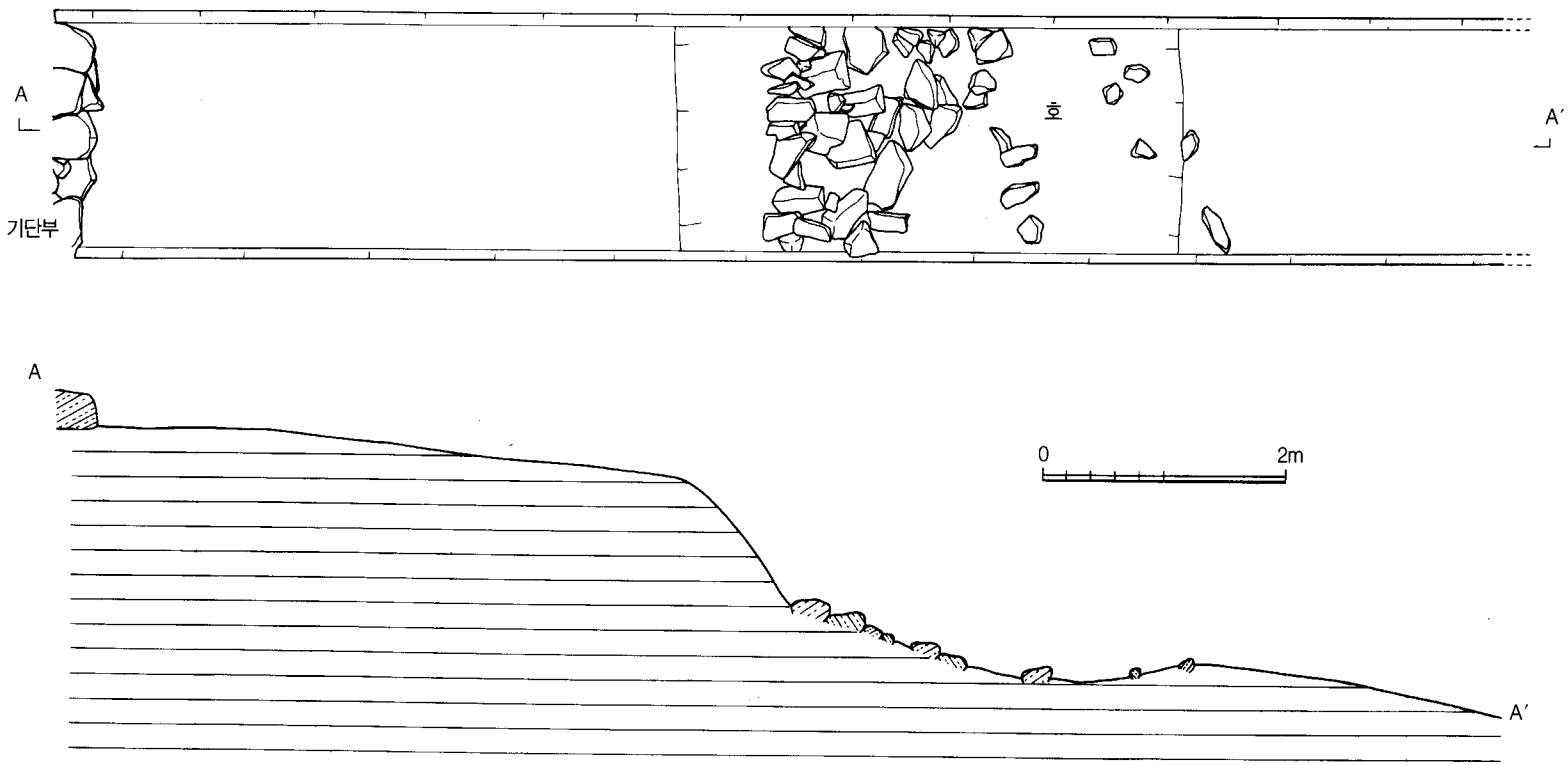
《조선고적보물조사자료》에 의하면 토루가 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현재에는 거의 삭평되어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탐색pit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경사가 심한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동 · 서 · 북쪽 면에 약간의 흔적이 발견할 수 있었다. 크기는 폭 100~150cm · 두께 10~15cm정도로 미미하게 노출되었으나 원래의 크기는 더 컸을 것이고 그 위에 3尺(약1m) 안팎의 목익 시설을 설치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기록된 토루와 호는 바로 이러한 시설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어진다.

따라서 토루 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목익 시설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동 · 서쪽에 각각 폭 4m 크기의 탐색pit를 넣어 조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사진 20-②〉 이는 연대부 조성지역이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목익 구멍을 파야하는 방책보다는 X자형 목익 시설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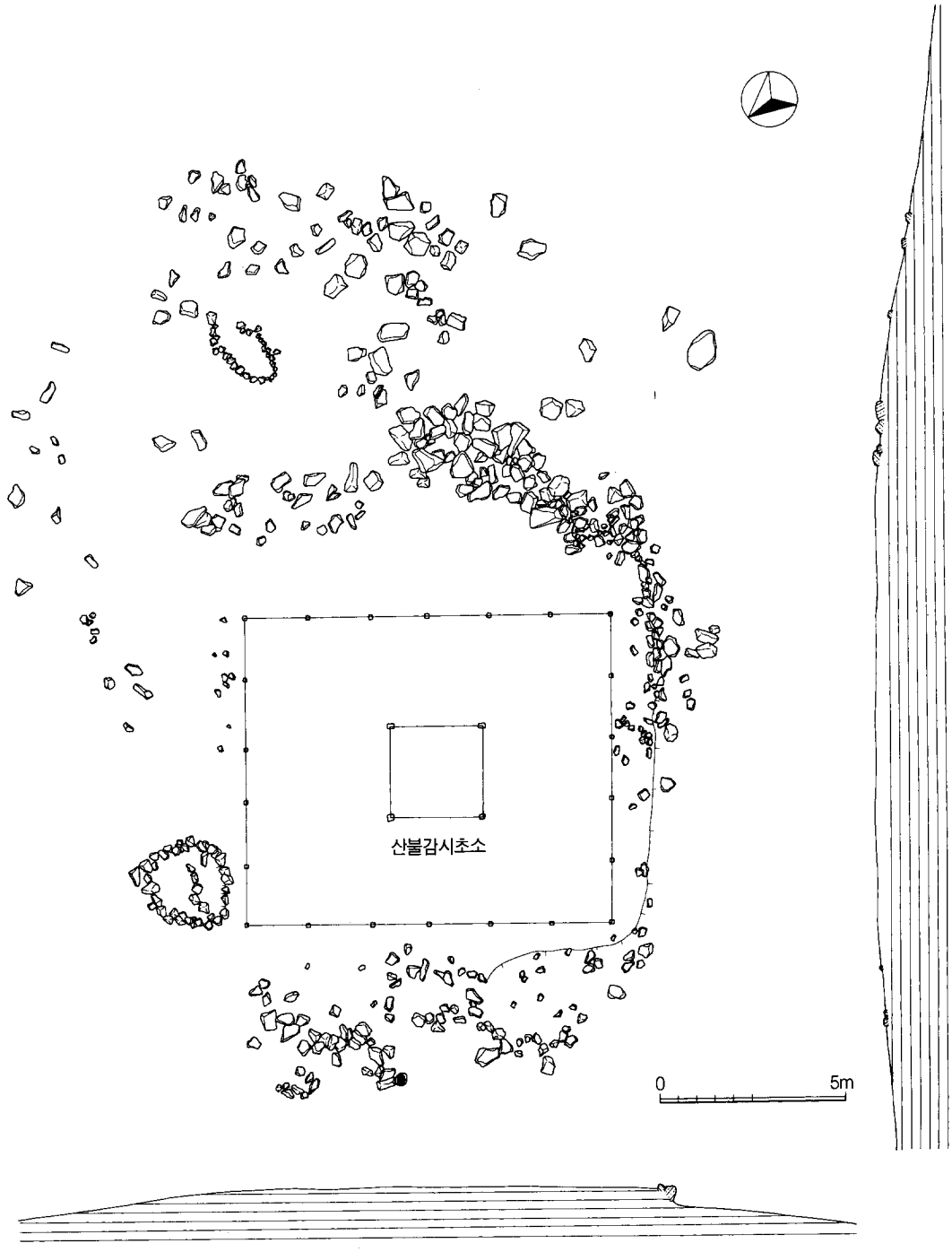
3. 出土遺物

1) 백자접시〈그림 12-①, 사진 29-①〉

연대내에서 출토된 백자로 약 $\frac{1}{3}$가량 결실된 것을 도상복원 하였다. 유약은 담연녹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내면 바닥에는 포개어 번조한 내화토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고 광택이 난다. 기벽은 완만하게 올라가다 입술을 밖으로 살짝 바라지



〈그림10〉 어달산 봉수대 북쪽 트렌치 실측도



〈그림11〉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전체 평면 및 단면도

게 하였다. 굽은 수직굽으로 접지면은 반듯하게 처리하고 접지면과 굽안은 유약을 훑어내고 태토비짐눈 받침으로 번조하였다. 크기는 추정입지름 14cm, 굽지름 6cm, 높이 3.8cm이다.

2) 백자 대접 구연부편〈그림 12-②, 사진 29-②〉

대접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되며 동쪽 트렌치에서 출토되었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유약의 색은 확인할 수 없다.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밖으로 살짝 바라지게 하였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황색을 보여주고, 기벽은 얇다. 크기는 추정입지름 14cm, 현존높이 5.5cm, 두께 0.4cm이다.

3) 백자 대접 저부편〈그림 12-③, 사진 29-③〉

동쪽 트렌치에서 출토된 백자 대접 저부편으로 구연부 전체와 동체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내면에 태토비짐 눈이 4곳 보이고, 굽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기벽 바깥면에는 성형시 생긴 회전흔이 남아 있다. 유약은 거의 박리되어 내면 일부에만 남아 있고 유색은 유백색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대접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굽지름 6.9cm, 현재높이 5.8cm이다.

4) 백자 접시 저부편〈그림 13-①, 사진 30-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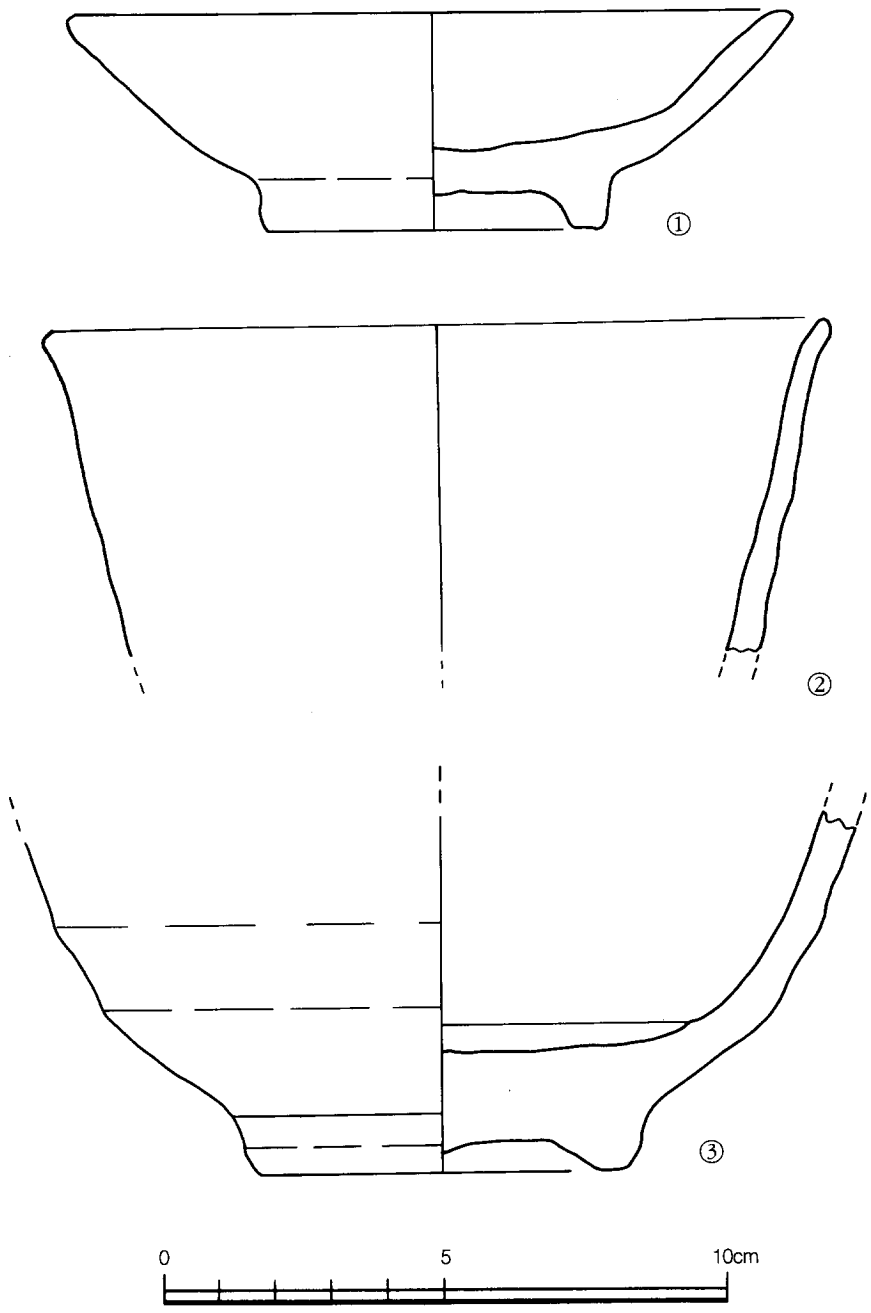
동쪽 트렌치에서 출토된 백자 접시 저부편으로 굽과 몸통 일부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는 굽보다 훨씬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은 수직굽에 접지면이 반듯하다. 유약은 불을 받아 모두 박리된 것으로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을 띤다. 크기는 굽지름 6.2cm, 현재높이 3.5cm이다.

5) 백자 저부편〈그림 13-②, 사진 3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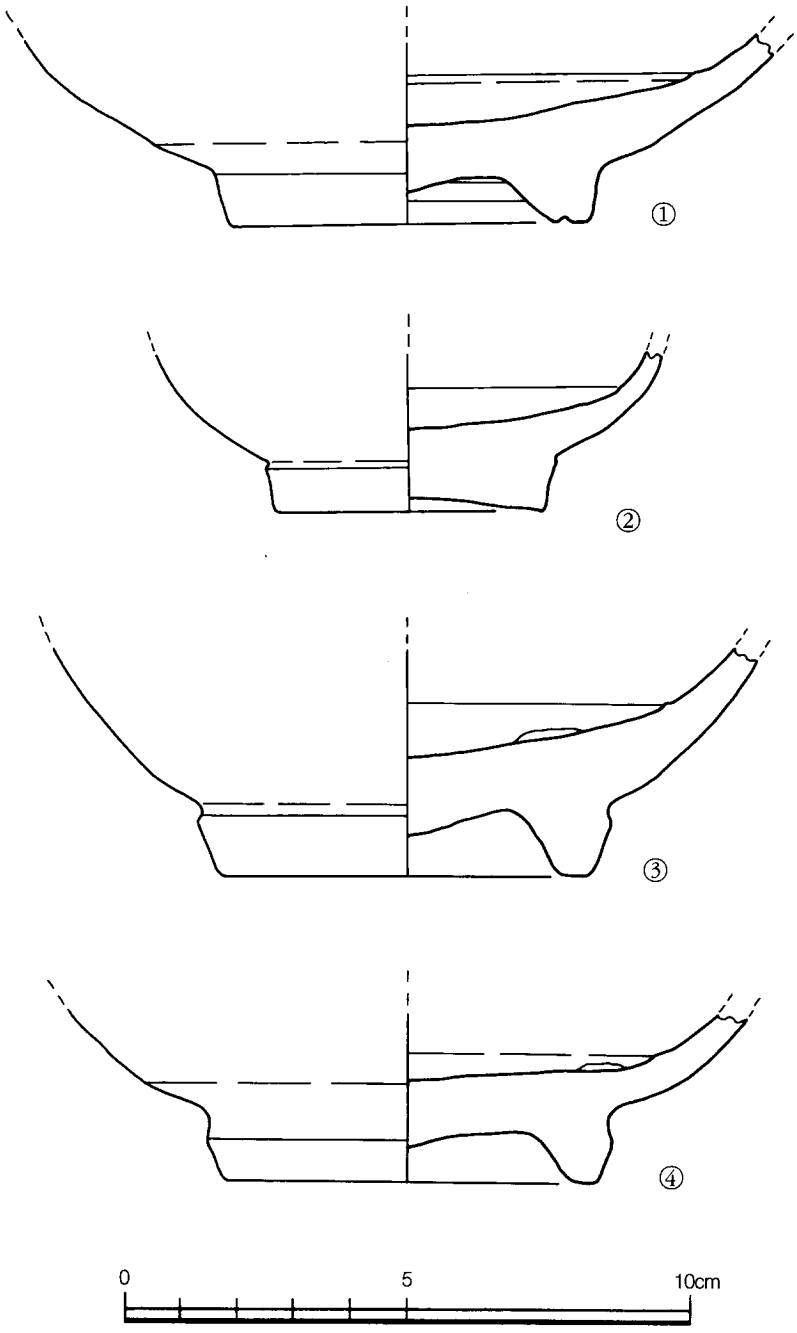
동쪽 트렌치에서 출토된 백자편으로 구연부가 모두 파손되었다. 굽은 평편한 것이 특징이며 유약은 굽을 잡고 시유했는데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하다. 유색은 담연녹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내면에는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소성은 굽바닥에 태토비짐눈 3개를 받쳐서 번조하였으며, 내저면에는 소성시 생긴 잡티가 붙었다. 크기는 굽지름 4.6cm, 현재높이 2.6cm이다.

6) 백자 대접 저부편〈그림 13-③, 사진 30-③〉

동쪽 트렌치에서 출토된 백자 대접 저부편으로 굽의 절반 가량 남아 있는 상태이다. 굽은 대마디굽이고,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내면에 약간 남아 있으나 불을 맞아 색깔이 바래졌으



〈그림12〉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그림13〉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며, 외면은 완전히 박리되어 있다. 내면에는 태토비짐 흔적이 있다. 크기는 굽지름 6.5cm, 현재높이 4.0cm이다.

7) 도기 저부편〈그림 15-①, 사진 30-④〉

동쪽 트렌치에서 출토된 도기 저부편으로 항아리의 바닥 일부분으로 보인다. 내외면에는 회전성형시 생긴 흔적이 있고, 색깔은 연갈색이다. 태도는 정선된 점토에 굵은 모래가 약간 섞여 있으며, 바닥은 반듯하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27cm, 현존높이 4.6cm이다.

8) 백자 대접 저부편〈그림 13-④, 사진 31-①〉

트렌치 내에서 출토된 유물로 백자 대접 저부편이다. 굽은 대마디굽이고, 접지면 4곳에 음각 분할선이 보이는데, 태토비짐눈을 받치는 곳에 낸 것이다. 유약은 내면 일부에만 남아있다. 시유는 굽을 제외하고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불을 맞아 유약의 색조가 바래졌다. 내면에는 태토비짐 자국과 굽보다 약간 넓은 내저원각이 있다. 유색은 유백색이고, 크기는 굽지름 6.5cm, 현존높이 2.8cm이다.

9) 백자 잔 저부편〈그림 14-①, 사진 3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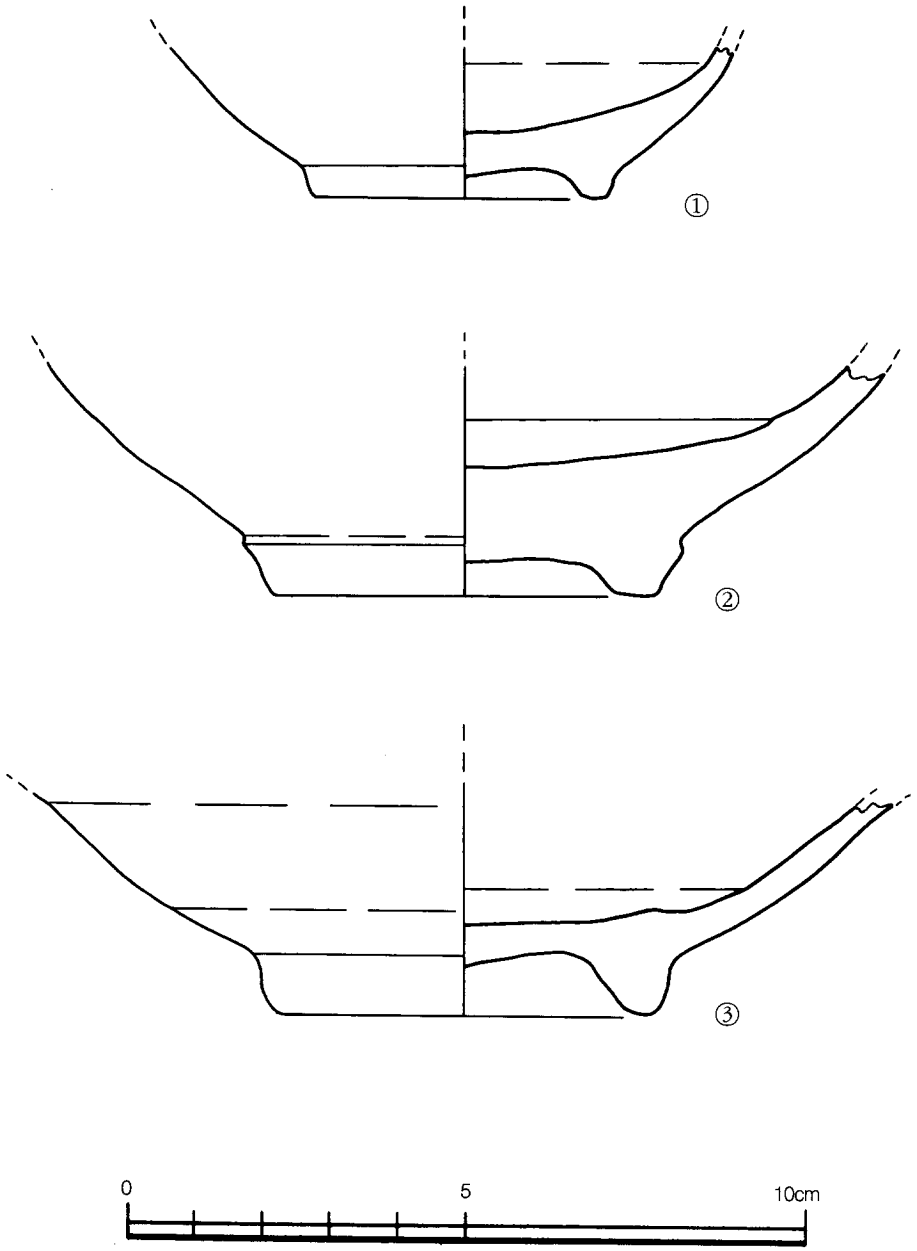
백자 잔 저부편이다. 굽 내면과 접지면을 제외하고 담연녹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빙열이 있다. 태토의 소성후 색조는 유백색을 띠며, 크기는 굽지름 4.5cm, 현존높이 1.7cm이다.

10) 백자 대접 저부편〈그림 14-②, 사진 31-③〉

백자 대접 저부편으로 지표채집된 것이다. 굽은 대마디 굽이고, 유약은 모두 불을 맞아 없어졌다. 색깔은 황색을 띠어 마치 초벌구이한 것 같다.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있으며, 크기는 굽지름 6.1cm, 현존높이 3.6cm이다.

11) 백자 접시 저부편〈그림 14-③, 사진 31-④〉

지표채집된 유물로 백자 접시 저부편이다. 유약은 담연녹색 투명유를 시유하였고 일부 뭉친 곳이 보이며, 굽 안쪽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굽에는 태토비짐눈 받침으로 번조한 흔적이 있으며, 크기는 굽지름 6.0cm, 현존높이 3.5cm이다.



〈그림14〉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12) 토기 저부편〈그림 15-②, 사진 31-⑤〉

지표채집된 유물로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으나 대형 항아리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색깔은 내외면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에는 다량의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크기는 추정 밑지름 18.4cm, 현존높이 6.8cm이다.

13) 백자 저부편〈그림16-①, 사진 32-①〉

저부 일부만 잔존한 백자 대접편으로 내저면에는 굽크기와 비슷한 내저원각이 있고 굽은 높은 편이며, 접지면으로 좁아지는 역삼각형 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유약은 변색되어 투박한 회백색 색조를 보여주며, 전면적으로 시유되었다. 소성은 예번으로 가는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크기는 현존 높이 3.9cm, 추정 밑지름 6.4cm, 기벽 두께 0.5cm이다.

14) 백자 저부편〈그림16-②, 사진 3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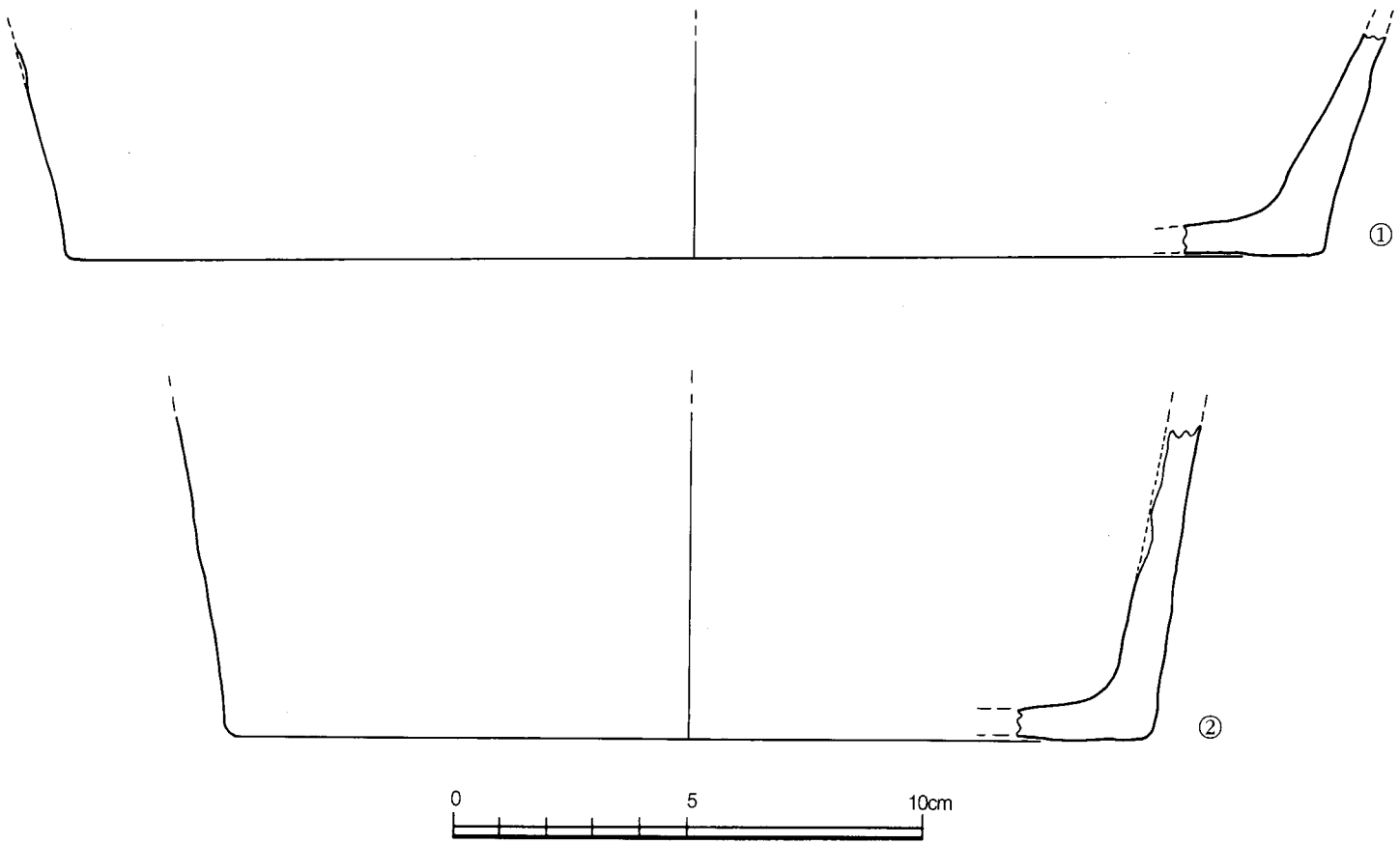
저부 일부만 잔존한 백자 접시편으로 내저면에는 태토비짐눈 자국이 두 곳 보인다. 굽은 죽절굽이고 접지면이 반듯하며, 굽안은 회전 굽깍기에 의한 중앙돌출이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을 보여준다. 유약은 변색된 녹황색유가 굽과 주위를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며, 태토 비짐눈 받침으로 포개어 번조하였다. 크기는 현존 높이 2.4cm, 추정 밑지름 5.5cm, 기벽 두께 0.6cm이다.

15) 백자 저부편〈그림16-③, 사진 32-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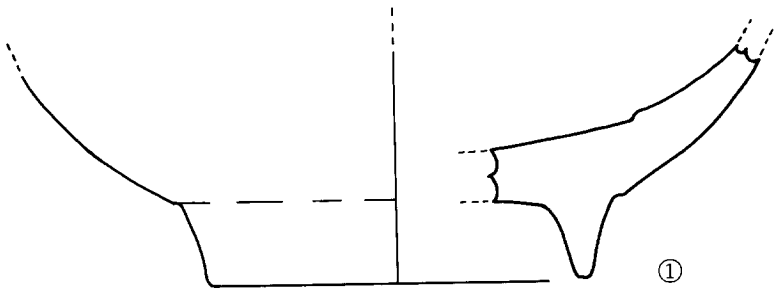
저부 일부만 잔잔한 백자 접시편으로 내저면이 곡면을 이루고 태토비짐눈 자국이 두 곳 보인다. 굽은 죽절굽이고 접지면은 반듯하며, 굽안은 회전 굽깍기에 의한 중앙돌출이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을 보여준다. 유약은 변색되어 유황색 색조를 띠고 빙렬이 보이며, 굽과 주위는 제외하고 시유되었다. 소성은 태토비짐눈 받침으로 포개어 번조하였다. 크기는 현존 높이 3cm, 추정 밑지름 5.7cm, 기벽 두께 0.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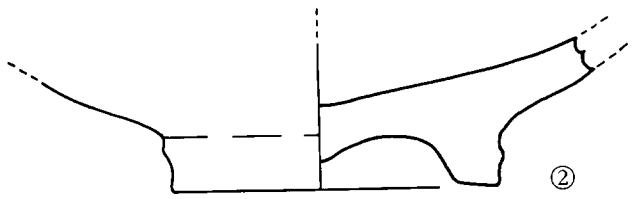
16) 백자 저부편〈그림17-①, 사진 32-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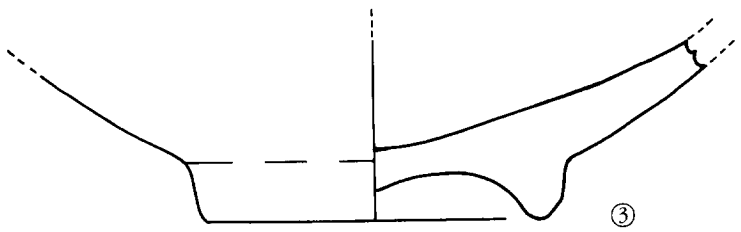
저부 일부만 잔존한 백자 대접편으로 내저면에는 큼지막한 태토비짐눈 받침이 두 곳 붙어 있다. 굽은 죽절굽에 가깝고 접지면이 반듯하며, 굽안의 중앙부가 돌출되어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을 띤다. 유약은 담청색유가 굽과 주위를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소성은 태토비짐눈 받침으로 포개어 번조하였다. 크기는 현존 높이 2.5cm, 추정 밑지름 6.5cm, 기벽 두께 0.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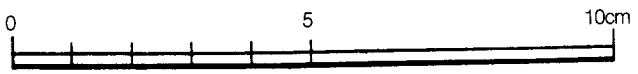


〈그림15〉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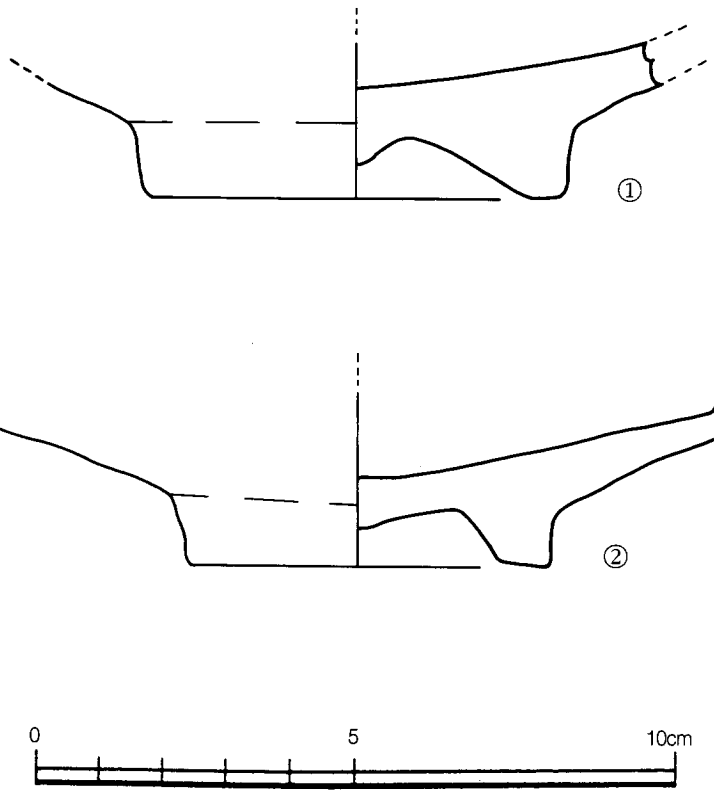








〈그림16〉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그림17〉 어달산 봉수대 출토 유물 실측도

17) 백자 저부편〈그림17-②, 사진 32-⑤〉

저부 일부만 잔존한 백자 접시편으로 내저면이 곡면을 이루고 태토비짐눈 받침자국이 두 곳 보이며, 내저원각이 돌아간다. 굽은 죽절굽에 가깝고 접지면이 반듯하며, 굽안의 중앙부가 돌출되어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담청색유가 굽과 주위를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일부 보인다. 소성은 태토비짐눈 받침으로 포개어 번조하였다. 크기는 현존 높이 2.8cm, 추정 밑지름 5.6cm, 기벽 두께 0.4cm이다.

18) 백자접시〈그림 18-①, 사진 33-①〉

백자접시로 추정 조선시대 초기 봉수지에서 지표채집된 유물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고 측사

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기벽이 두꺼운편이며, 태토의 소성후 색조는 유백색을 띠고 있다. 굽은 수직굽이고 접지면이 반듯하다. 시유는 굽 한쪽을 잡고 하였으며, 굽안까지 시유하였다. 유약은 담연녹색이고, 굽 안쪽까지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고 광택이 난다. 내면과 굽에는 태토비짐눈 받침으로 번조한 흔적이 있고 내저면에는 잡티가 붙어 있다. 크기는 굽지름 5.6cm, 높이 3.8cm이다.

19) 암키와 편〈그림 18-②, 사진 33-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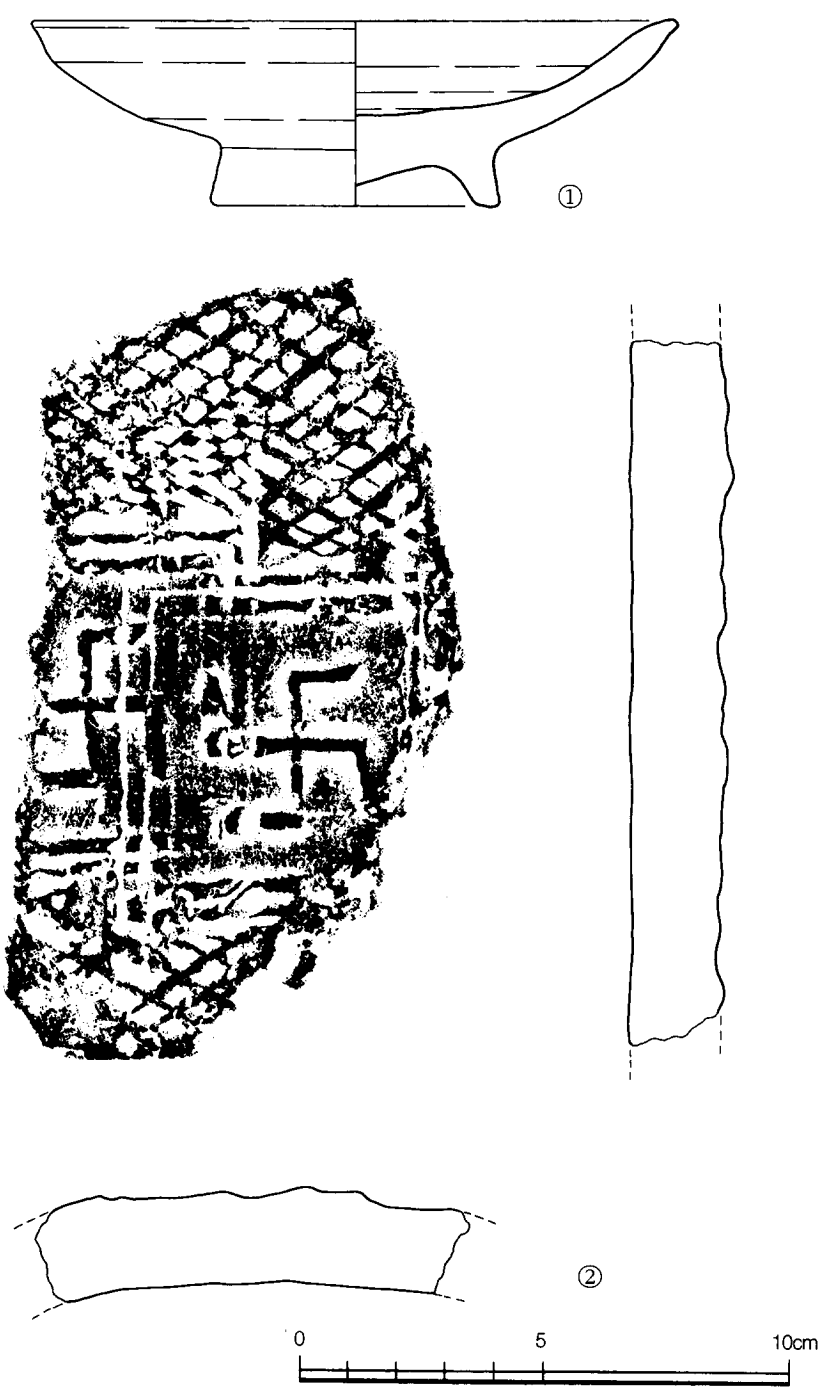
추정 조선시대 초기 봉수지에서 지표채집된 암기와 편으로. '귀' 자와 격자문이 새겨져 있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있다. 크기는 가로 9.1cm, 세로 18cm, 두께 2.1cm이다.

20) 암키와 편〈그림 19-①, 사진 33-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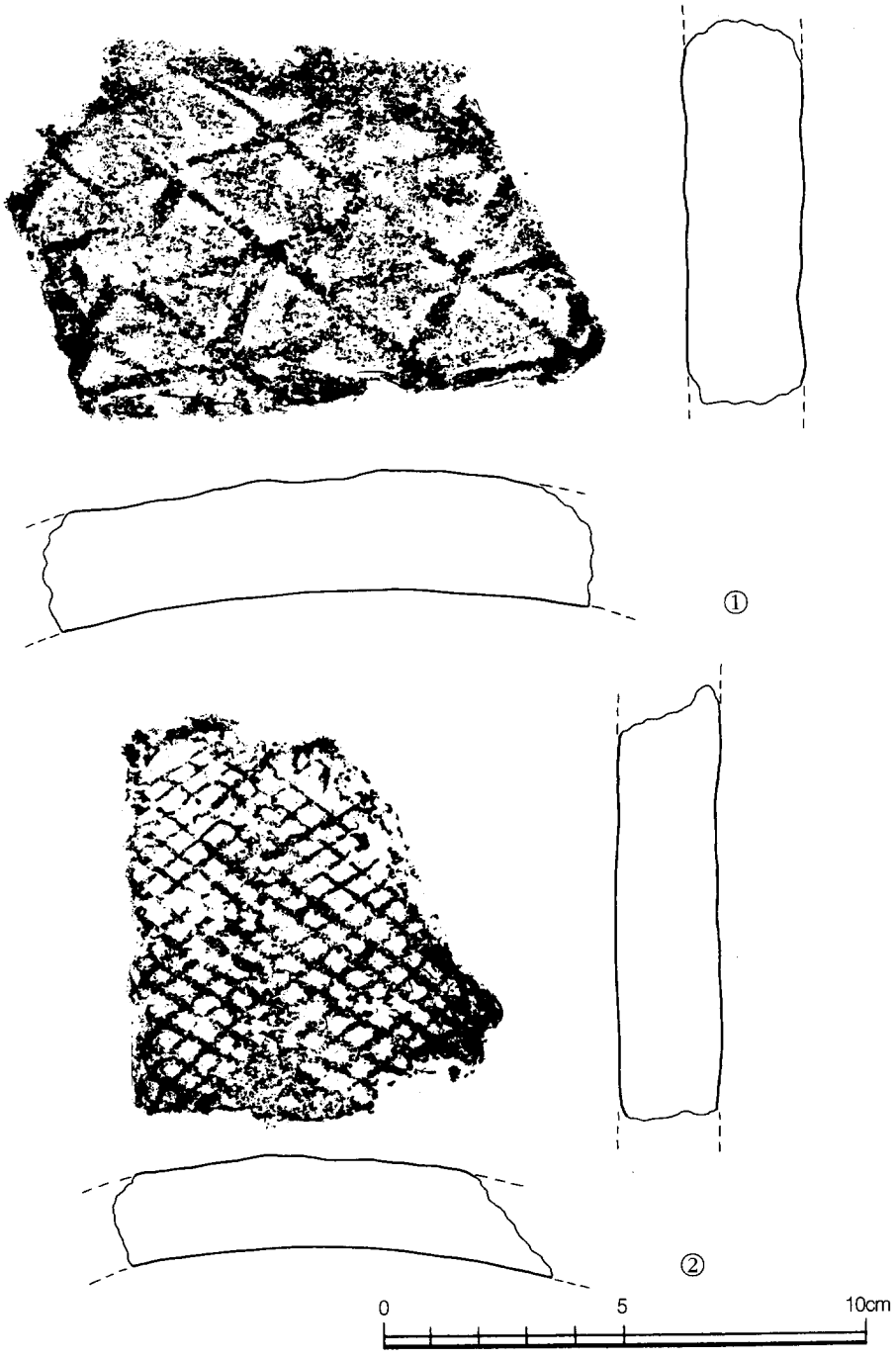
추정 조선시대 초기 봉수지에서 지표채집한 암키와편으로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색조는 연갈색을 띠고 있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있다. 크기는 가로 10.8cm, 세로 8cm, 두께 2.5cm이다.

21) 암키와 편〈그림 19-②, 사진 33-④〉

추정 조선시대 초기 봉수지에서 지표채집한 암키와편으로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있다. 기와 분리면은 와도를 내측면에서 약 $\frac{1}{2}$ 정도 그어 분리하였다. 크기는 가로 9cm, 세로 8.6cm 두께 2.2cm이다.



〈그림18〉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지표채집 유물



〈그림19〉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지표채집 유물

Ⅵ. 綜合考察

1. 遺構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통신수단으로는 봉화와 파발제도가 있었으며 임진왜란 전에는 군사 통신 기능으로 주로 봉수제도가 사용되었고 임진왜란 후에는 봉수제도와 파발을 함께 사용하였다. 주로 조선 전기에 사용된 봉화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국경의 급보를 중앙에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에도 알려 적의 침입을 대비케 하는 군사통신의 일종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봉수대의 시원을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봉현 · 봉산 · 봉산성과 같이 봉화에 관련된 지명이 문헌에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삼국시대 봉화터가 발견된 예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봉화제도가 개성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오다 조선 초 세종대에 4군 6진의 개척과 더불어 크게 확립되었다.

강원 영동지방에서는 고려시대까지도 봉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동지방에 남아 있는 봉수는 대부분 파괴되어 손꼽을 정도만 남아 있으며 그 대부분이 조선 초의 연변봉수와 같은 형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봉수의 특성상 봉수대 몇 개로서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봉수체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립되어야 봉수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고려시대에 영동지방이 국방의 주요 접경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면, 조선초기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국적인 봉수대 기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까지는 영동지방에 봉수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한 어달산 봉수대의 설치시기는 조선 초 세종대의 4군6진 등의 변경개척에 따라 북방 연변에 봉수대를 본격적으로 설치하면서 북로 봉수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62], 이 때 동해안의 간봉 봉수노선도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봉수대는 군부대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파괴되어 잘 남아 있지 않으나 고성군 삼포리 봉수대[63]와 마차진리 봉수대[64]는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두 봉수대

62) 남도영, 1974.〈조선시대 군사통신조직의 발달〉《韓國史論》9.
63)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5.《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3.
64)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5.《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126.

가 어달산 봉수대 크기와 비슷하고 주변시설들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 보고된 것으로 보면 이 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세종 29년 병조에서 마련한 문헌에 나타난 기록과 어달산 봉수대 발굴조사 후의 연대 및 주변시설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65]

구분	형태	높이	둘레	4면 연대 기단길이	호의 깊이와 넓이	목의 길이
세종29년	방형	25尺(7,81m)	70尺(21,86m)	각30尺(6,37m)	각10尺(3,12m)	각3尺0.93m
어달산 봉수대	방형	현재0.6m	23,2m	평균 5,8m	깊이0.8~1.3m 폭 2,3m	확인불가
비교	같음	상층부교란	비슷	비슷	비슷	확인불가

※상기제원은 세종때 주로 사용한 管造尺을 기준으로 하였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의 형태는 문헌기록에서와 같이 방형임이 확인되었으며, 연대의 둘레 · 연대 4면 각 기단의 길이 · 호 · 토루의 설치 등은 문헌과 거의 비슷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높이에 있어서 문헌에서는 25尺(7.81m)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어달산 봉수대에서는 연대 상층부가 파괴되어 자세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문헌에 보이는 높이까지는 축조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는 연대 안에서 노출된 모래와 숯들이 연대 바닥 가까이에서 보이고 있으며, 동해안은 함경도 지방과 같이 산봉우리가 첩첩이 둘러 쌓인 지형이 아니라 바닷가 옆의 확트인 산봉우리 정상부에 봉수대를 만들어 시야가 양호하기 때문에 연대의 높낮이 보다는 봉수대의 위치가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성군 삼포리 봉수대의 경우 연대 가장자리만 장대석으로 쌓고 연대 안쪽은 비어 있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문헌보다는 낮게 쌓거나 연대 위에 연조 · 연통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불을 지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달산 봉수대는 경봉수 · 내지봉수 · 연변봉수 중 해안에 위치한 연변봉수로써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지 봉수와는 다른 형태임이 확인되었다. 충주 주정산 봉수대[66], 성남 천림산 봉수대[67]에서 조사된 내지봉수는 지형에 따라 축조된 말각장방형의 외곽 석축 · 그 위의 봉돈부 석축과 수개의

---

65) 《世宗實錄》卷150, 29년 3월 丙寅.
沿邊各處煙臺造築 高二十五尺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 外掘塹深廣各十尺 皆用營 造尺 又於坑塹外面 設木 長三尺 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藏兵器及朝夕 供用水火器皿等物 《世宗實錄》卷150, 29년 3월 丙寅.

66)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7.《충주 주정산 봉수대 발굴조사 보고서》.

67) 한국토지공사 박물관, 2000. 《성남 천림산봉수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연조시설 · 그리고 건물지 등으로 구성된 반면, 연변 봉수인 어달산 봉수대는 방형의 연대를 만들고 주위에 토호를 만든 후 호 바깥으로 토루와 목익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볼 때, 내지봉수와는 형태면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난다. 즉 연변봉수는 내지봉수보다 그 규모가 작고, 가옥시설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연대의 규모가 여러 개의 연조 시설을 만들기에는 다소 작은 편이다.

2. 遺物

어달산 봉수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조선시대 백자편이고 일부 도기편(수량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도 보인다. 봉수대 발굴조사 과정과 지표상에서 수습된 백자편들은 여러점 되지만 15점만을 선별하여 기종별로 살펴보았다. 종류는 크게 3종으로 구분되는데, 접시 6점, 대접 7점, 잔 2점이다.

접시는 기형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 1점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연이 모두 결실된 저부편이다. 성형은 굽의 형태에 따라 직립굽 3점, 죽절굽 3점이고, 내저원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각각 3점씩 확인되었으며, 받침형태는 모두 4~5개의 큰 태토비짐눈 받침을 하였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 5점, 회백색 1점이고 유약은 담연녹색투명유 3점, 담청색 1점이다. 번조상태는 모두 포개어 번조한 상번이며, 시유방법은 굽부분을 제외하고 전면에 하였다.

대접 역시 접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저부편으로, 성형은 굽의 형태에 따라 직립굽 2점, 죽절굽 3점, 삼각굽 1점이며, 내저원각은 있는 것이 5점, 없는 것이 1점이다. 받침형태는 태토비짐눈 받침 5점, 가는 모래받침 1점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이 6점, 회백색 1점이고, 유약은 대부분 변색되어 1점만 확인되었는데 담청색을 띤다. 번조상태는 상번 4점, 예번 1점이며, 시유방법은 굽부분을 제외한 것이 3점, 전면 시유가 1점 확인되었다.

잔은 2점 모두 저부편이다. 굽의 형태는 직립굽 1점, 원판형 평저굽 1점이며, 소성받침은 태토비짐눈 받침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모두 유백색을 띠고 유약은 각각 담연녹색, 담청색을 보여주며, 내저원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각각 1점이다. 번조상태는 포개어 번조하지 않았고 시유방법은 굽부분을 제외하고 전면에 하였다.

표 1. 어달산 봉수대 백자 속성 분류표

종류	굽 형태			받 침		태 토		유 약		내저원각		번 조		시유방법	
	직립	죽절	삼각	태토비짐	모래	회백색	유백색	담연녹색	담청색	있다	없다	예번	상번	전면	굽 제외
접시(6)	3	3		6		1	5	3	1	3	3		6		5
대접(7)	2	3	1	5	1	1	6		1	5	1	1	4	1	3
잔(2)	1			2			2	1	1	1	1	2			2

이상의 백자편들을 살펴본 결과 백자의 속성별 특징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굽의 형태에서는 직립굽[68]과 죽절굽[69]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받침은 태토비짐눈 받침[70]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71], 내저원각[72]이 월등하다. 또한 시유 방법에서도 굽을 제외한 시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백자의 상대편년 기준에 따라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 백자의 형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3. 맺는말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헌기록에 의하면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북쪽의 휴전선에서 남쪽의 삼척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18기의 봉수대가 위치하였다고 하나, 봉수지가 해안가에 위치한 관계로 군사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파괴되어 결실된 상태이다.

그 중 고성 삼포리 봉수지, 마차진리 봉수지, 동해 어달산 봉수지, 삼척 광진산 봉수지, 양야산 봉

68) 직립굽 백자는 조선초기에서 후기까지 장기간 제작되었으나, 가는모래받침에 포 개어 번조하지 않고 내저원각이 돌아가며 안으로 좁아지는 삼각굽 백자(접시, 대 접)는 16세기에 유행한 형식이다.

69) 죽절굽 백자(접시, 대접)는 15세기~16세기에 가장 많이 제작된 것으로 주로 굽과 주위에 시유되지않고 태토비짐눈받침으로 번조함.

70) 15세기 백자는 태토비짐눈 받침이 큰 편이고 기벽이 두꺼우며, 16세기 백자는 태 토비짐눈 받침이 작아지고 기벽이 얇아짐(尹龍二, 1993,《韓國陶瓷史研究》, 文藝出版社, P.422.).

71) 15세기에는 분청자와 백자가 함께 제작되는 시기로 특히, 백자는 15세기 후반 관 요인 '분원' 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백자가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된다. 15세기 후반의 백자는 백자 제작술이 미약하여 양질의 백자가 제작되지 못했지만, 16세 기에 들어서면서 유백색의 세련된 양질백자가 제작된다.

72) 내저원각은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폭 넓은 시기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른 시기의 내저원각은 넓고 뚜렷하나 후대로 가면서 좁아지고 희미해진다.

수지만이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번에 발굴조사한 어달산 봉수대의 치폐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그 형태가 세종 29년 병조 기록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같은 유형이고, 연대 주변에서 출토된 백자류가 15C후반~16C후반으로 편년되는 것으로 보아, 15C초~16C말까지의 시기의 약 150~200여년간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국가적 중요 급변사항을 중앙에 알리는 군사통신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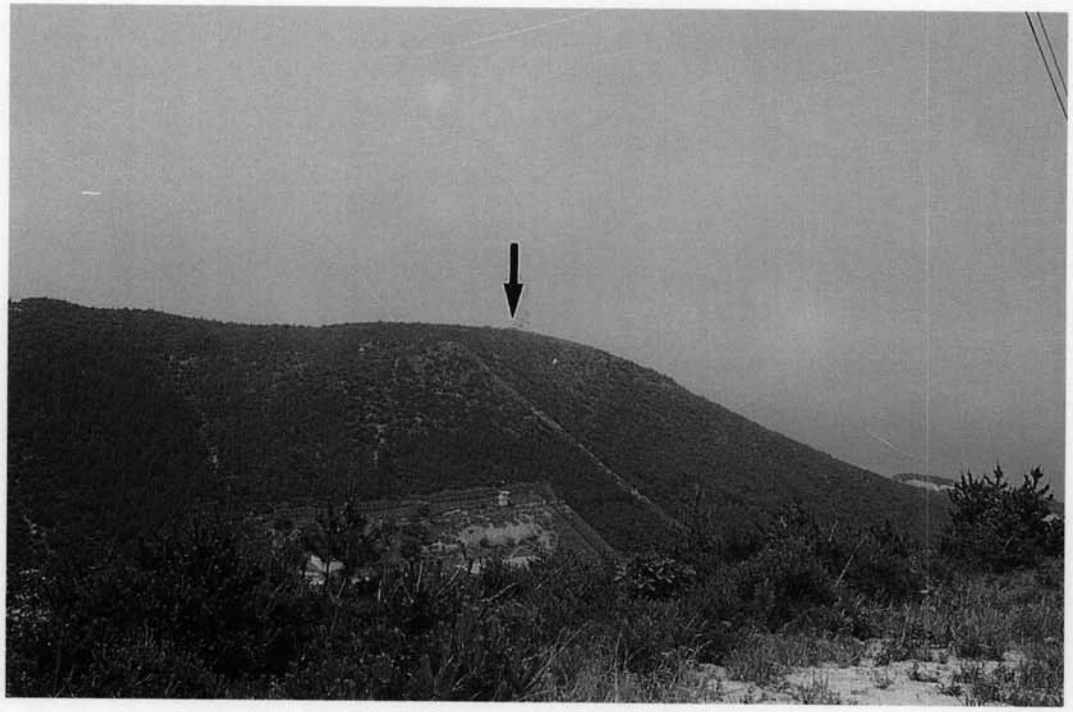
또한 이번 조사는 강원 동해안의 연변 봉수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어달산 봉수대는 현재까지 밝혀진 연변봉수대 중 가장 잘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봉수지 연구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어달산 봉수대는 복원 후 사적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교육자료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달산 봉수대 복원문제에 있어서 연대, 호, 토루 등은 현재 발굴조사된 자료를 이용하면 될 것이나 아쉽게도 연대 상부시설이 없어져 그 크기와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자료의 증가를 기다렸다가 상부시설의 형태가 제대로 확인된 후에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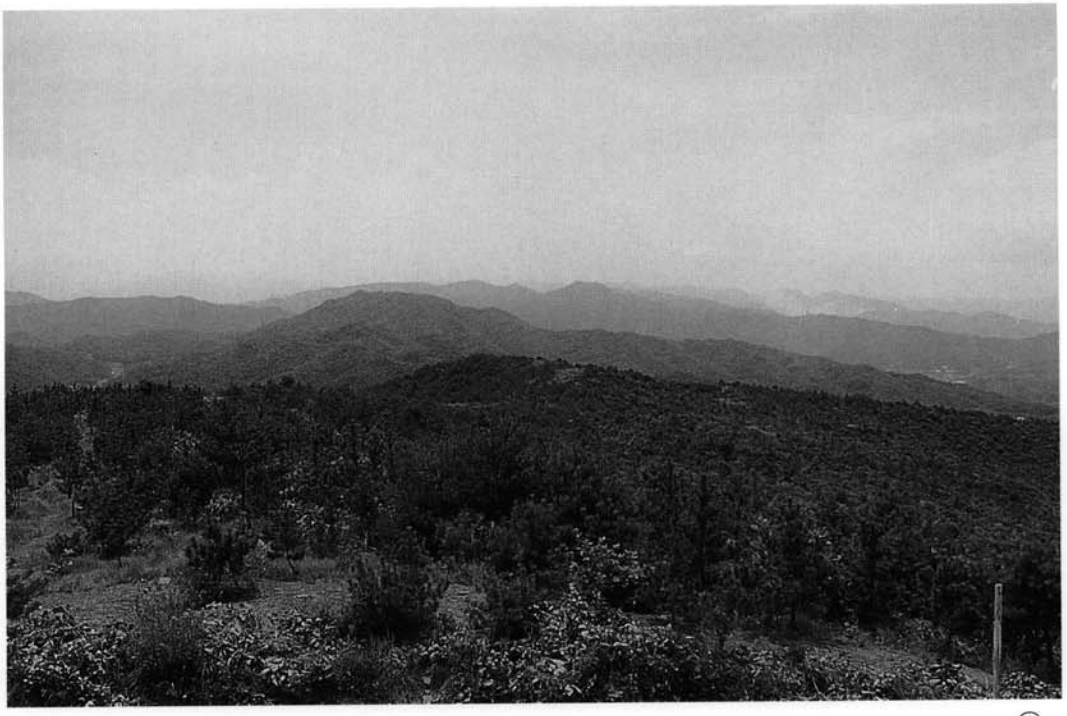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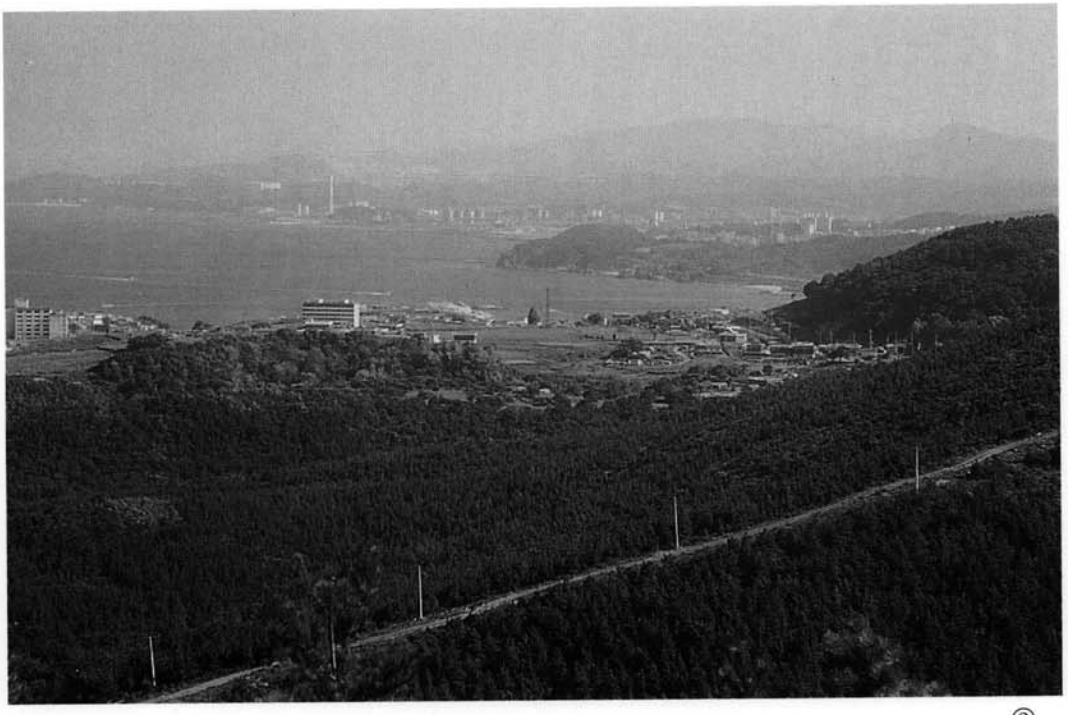


②

〈사진 1〉 ① 어달산 봉수대 먼 모습(북→남)
② 어달산 봉수대 먼 모습(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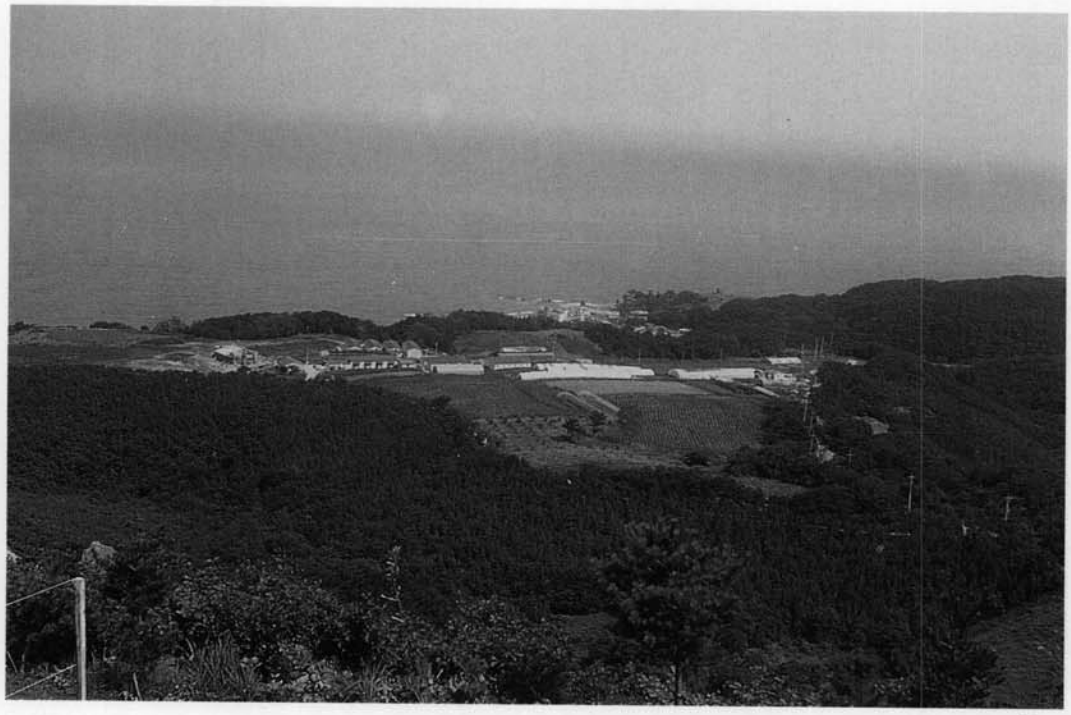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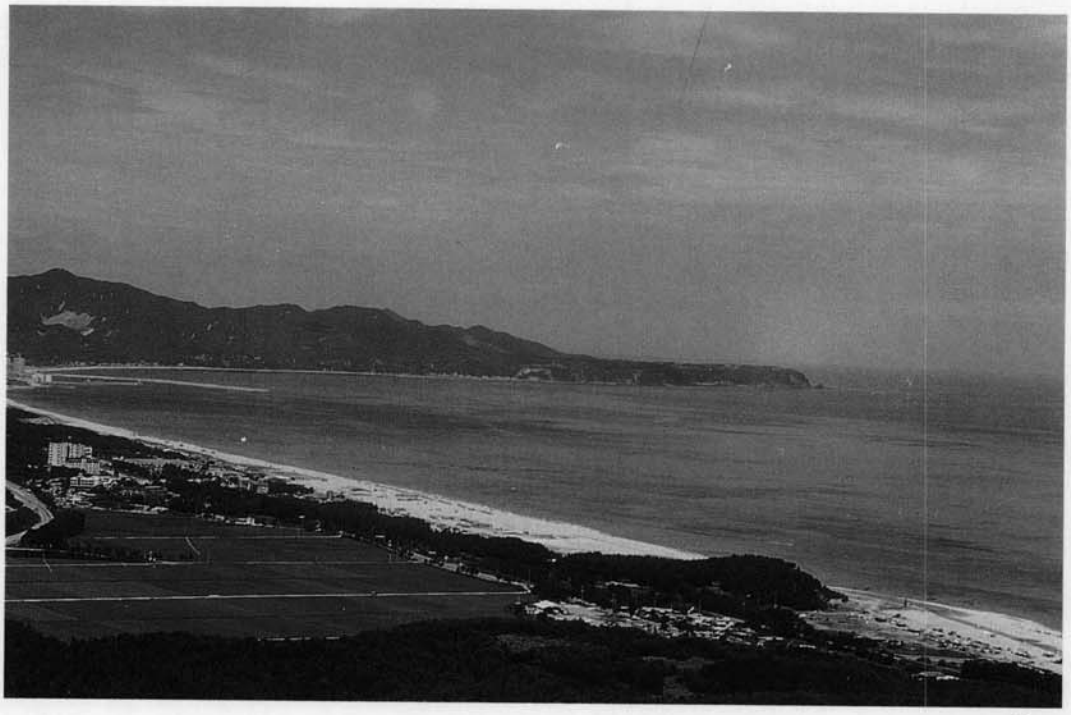


②

〈사진 2〉 ①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서쪽(태백산맥)
②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남쪽(동해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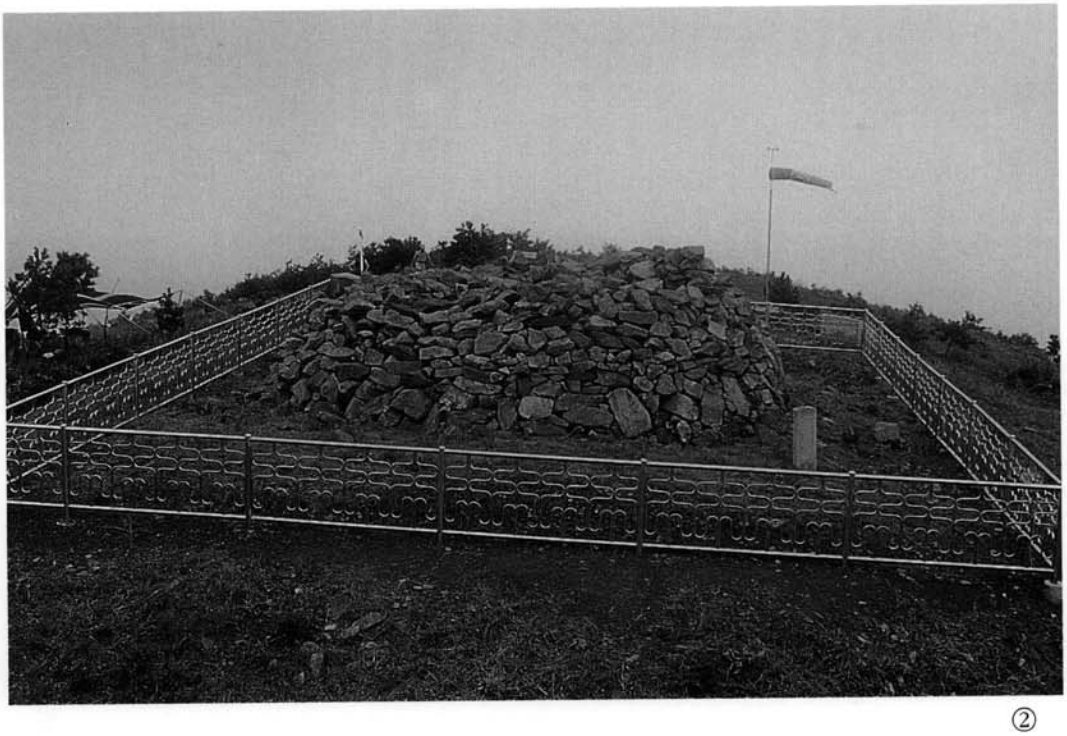


②

〈사진 3〉 ①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동쪽
②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북쪽(강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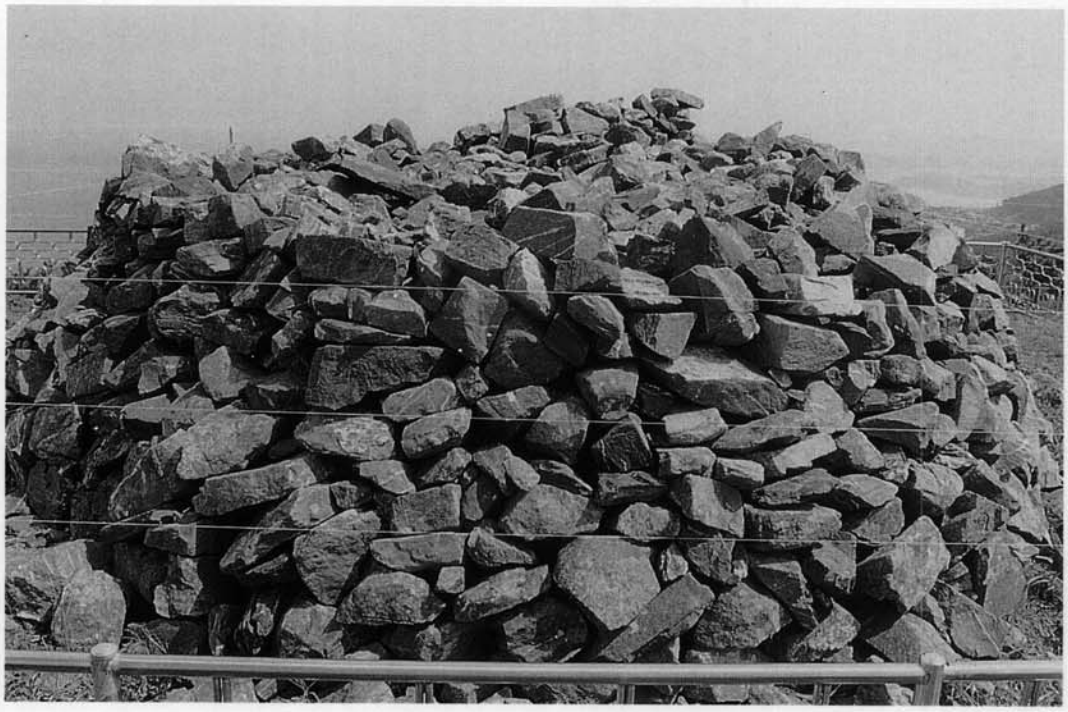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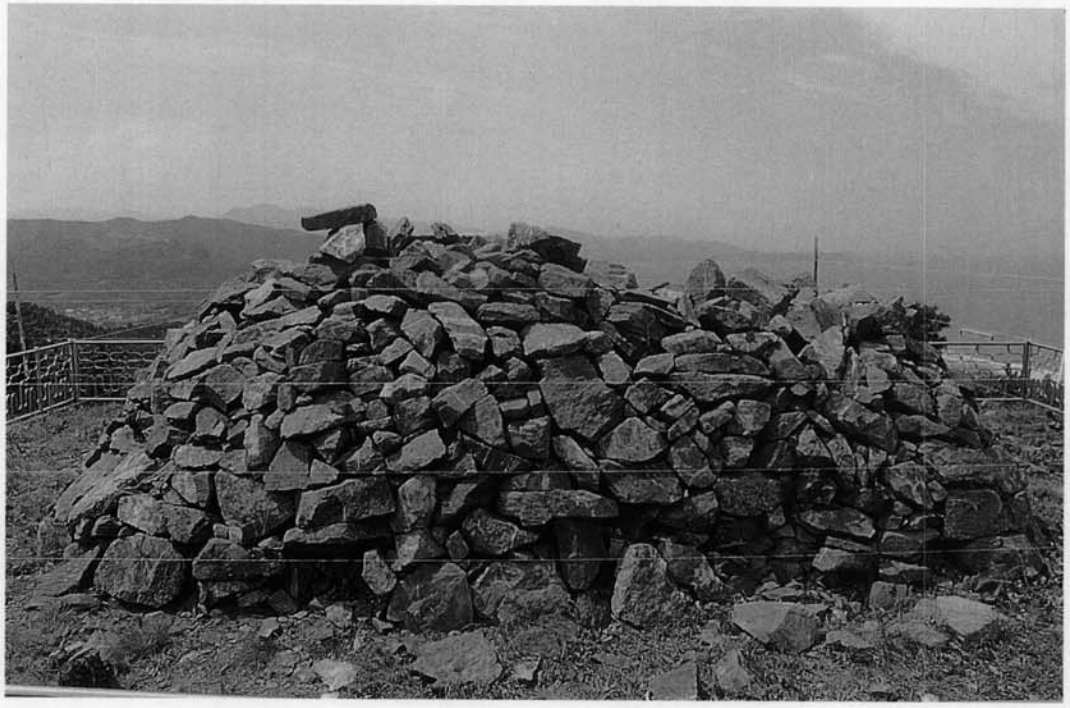


②

〈사진 4〉 ① 어달산 봉수대 가까운 모습(서→동)
② 어달산 봉수대 가까운 모습(동→서)



①



②

〈사진 5〉 ① 어달산 봉수대 북쪽 석축 쌓은 모습(조사전)
② 어달산 봉수대 남쪽 석축 쌓은 모습(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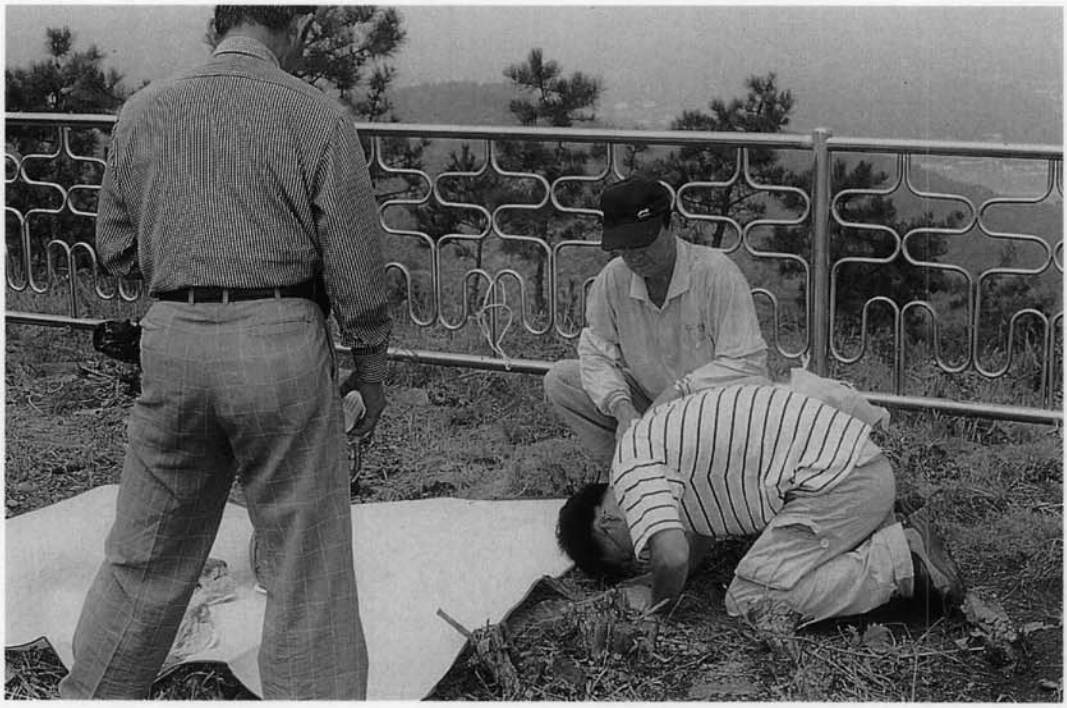


①



②

〈사진 6〉 ① 어달산 봉수대 동쪽 석축 쌓은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서쪽 석축 쌓은 모습



①



②

〈사진 7〉 ① 개토제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해체작업 모습





〈사진8〉 어달산 봉수대 해체작업 모습





〈사진9〉 어달산 봉수대 상면 적석 제거 후 모습





〈사진10〉 조선시대 석축 및 숯 · 모래 노출모습



①



②

〈사진11〉 ①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나온 모습(서→동)
②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나온 모습(동→서)



①



②

〈사진12〉 ① 어달산 봉수대 내부 적석 제거 전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내부 적석 제거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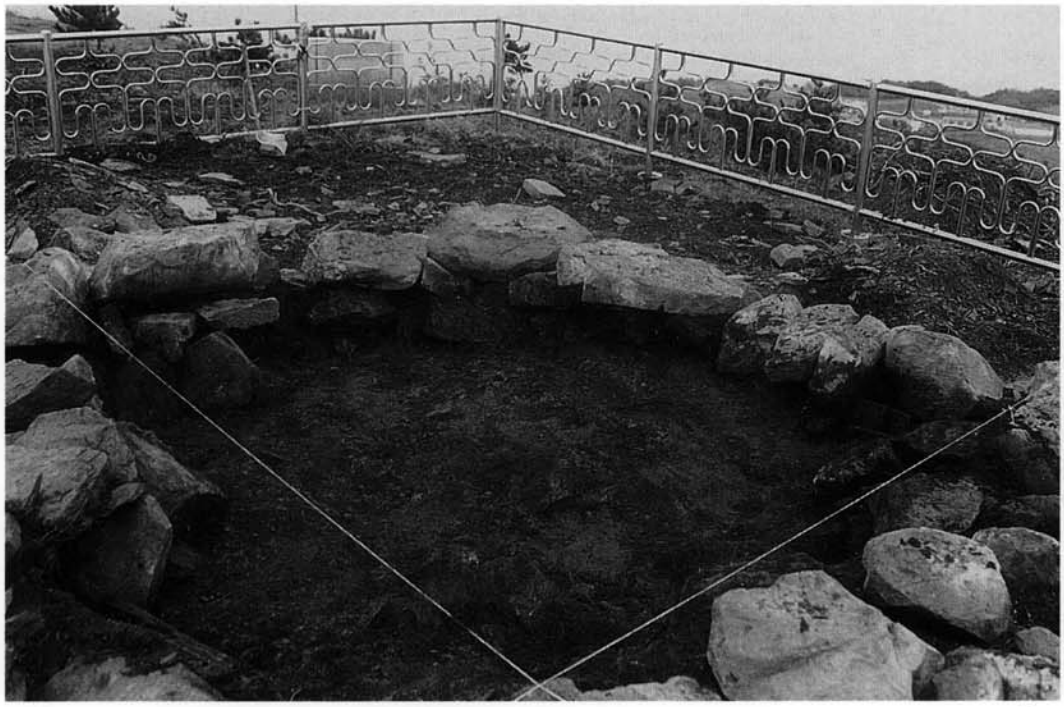


①



②

〈사진13〉 ① 어달산 봉수대 내부 퇴적토 트렌치 넣은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내부 퇴적토 제거 후 모습



①



②

〈사진14〉 ① 어달산 봉수대 석축 쌓은 모습 (內→外)
② 어달산 봉수대 내부 적석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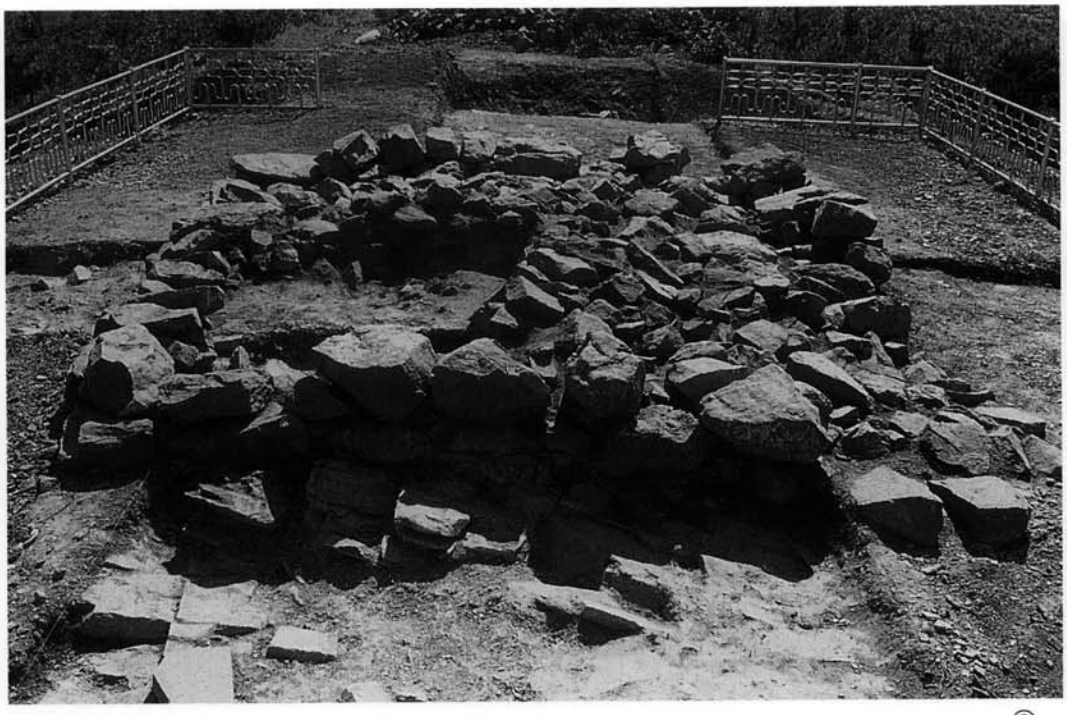


②

〈사진15〉 ① 어달산 봉수대 내부 퇴적토 및 기반암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유물 출토 모습



①



②

〈사진16〉 ① 어달산 봉수대 숯 출토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동쪽 석축 모습



①



②

〈사진17〉 ①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서쪽 석축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남쪽 석축 모습



①



②

〈사진18〉 ①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남쪽 석축 들여쌓기한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서쪽 석축 들여쌓기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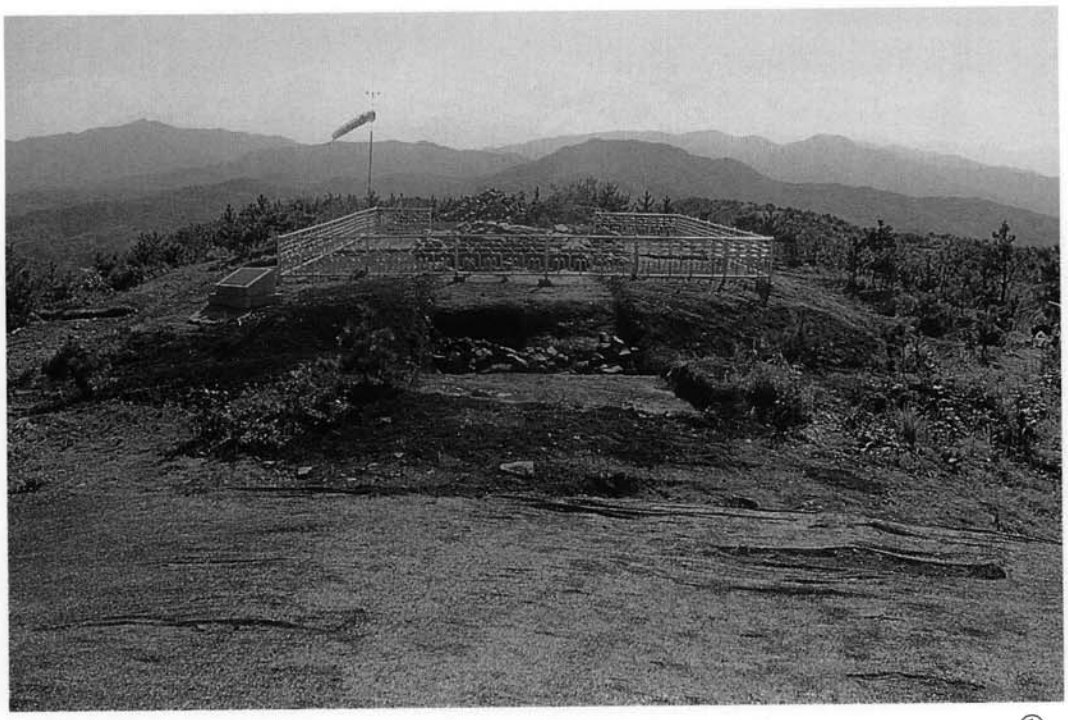


①



②

〈사진19〉 ① 어달산 봉수대 연대부 추정 출입구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넣은 모습(서→동)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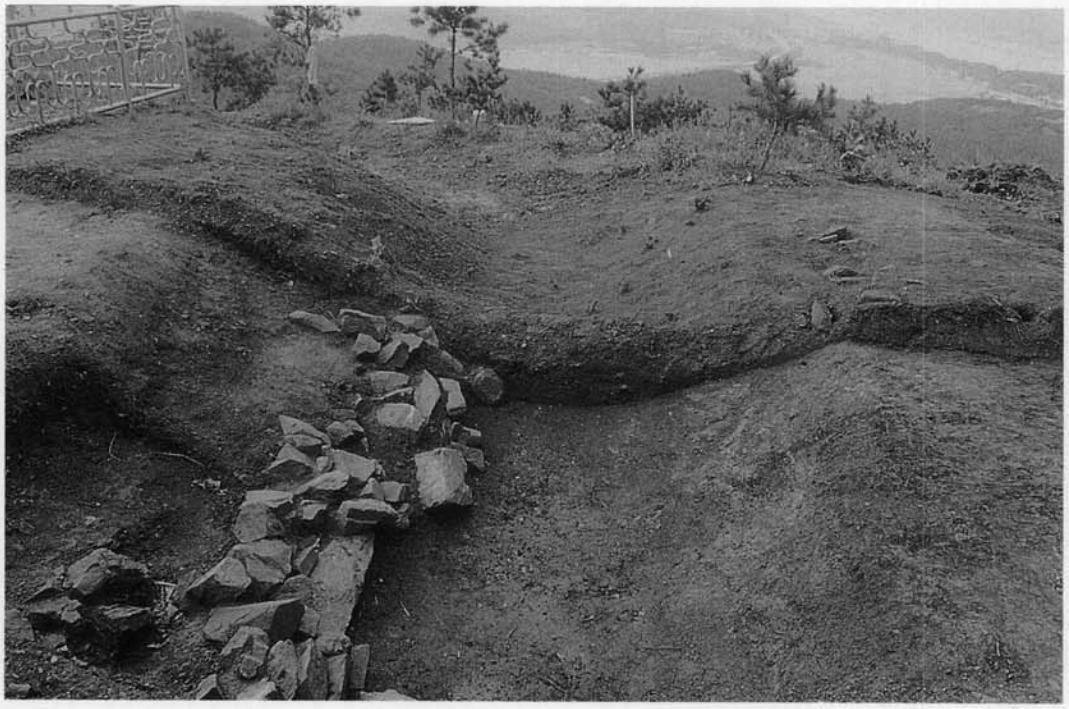


②

〈사진20〉 ①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넣은 모습(동→서)
②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축대 나온 모습



①



②

〈사진21〉 ①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석축 및 호 단면 모습(북→남)
② 어달산 봉수대 동쪽 트렌치 석축 및 호 단면 모습(남→북)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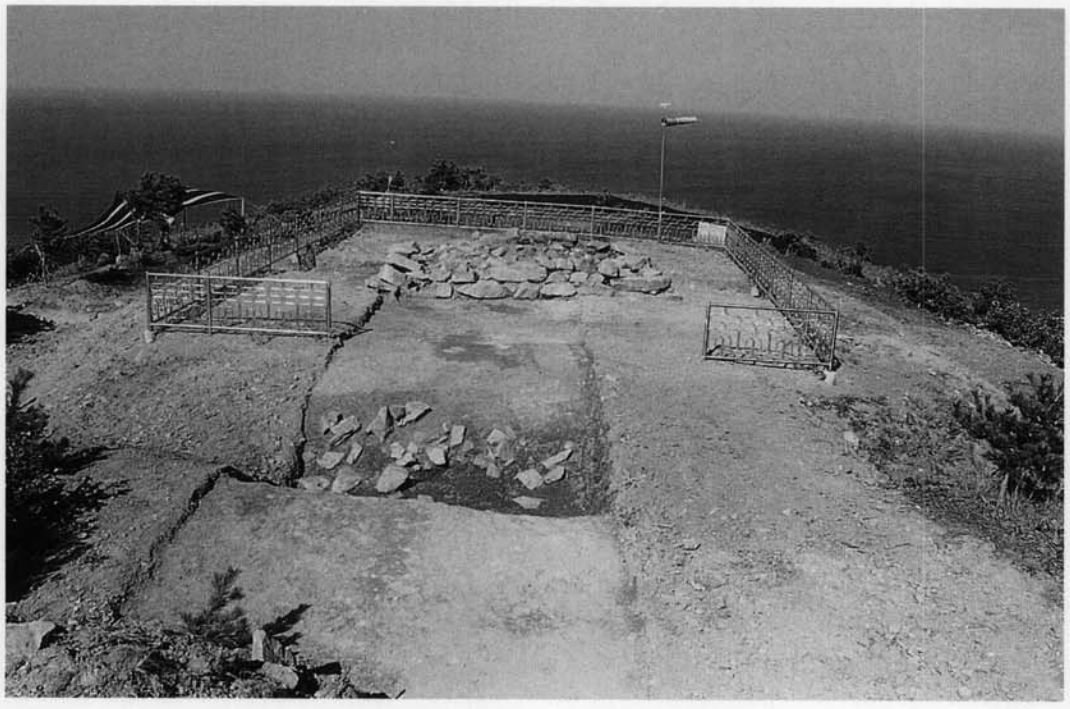


②

〈사진22〉 ① 어달산 봉수대 북쪽 호 트렌치 넣은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북쪽 호 트렌치 석축 나온 모습



①



②

〈사진23〉 ① 어달산 봉수대 북쪽 호 트렌치 석축 및 호 단면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서쪽 호 트렌치 넣은 모습



①



②

〈사진24〉 ① 어달산 봉수대 서쪽 호 트렌치 석축 나온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 서쪽 호 트렌치 석축 및 호 단면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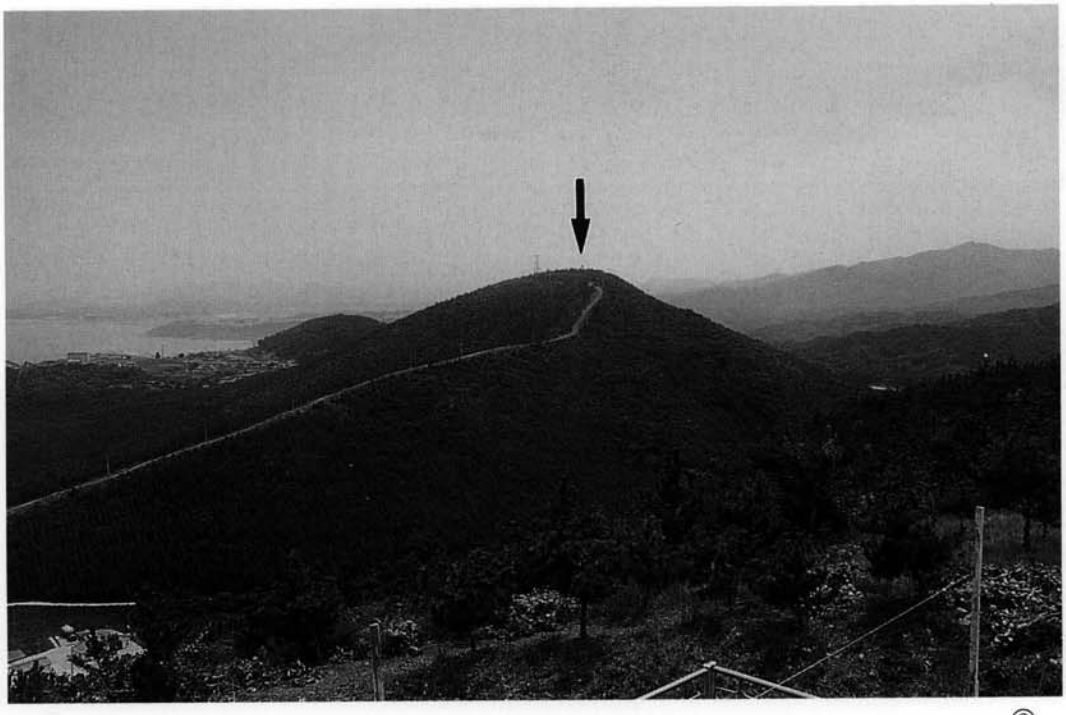


②

〈사진25〉 ① 어달산 봉수대 남쪽 호 트렌치 넣은 모습(북→남)
② 어달산 봉수대 남쪽 호 트렌치 넣은 모습(남→북)



①



②

〈사진26〉 ① 어달산 봉수대 조사 후 유구 보호 모습
② 어달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먼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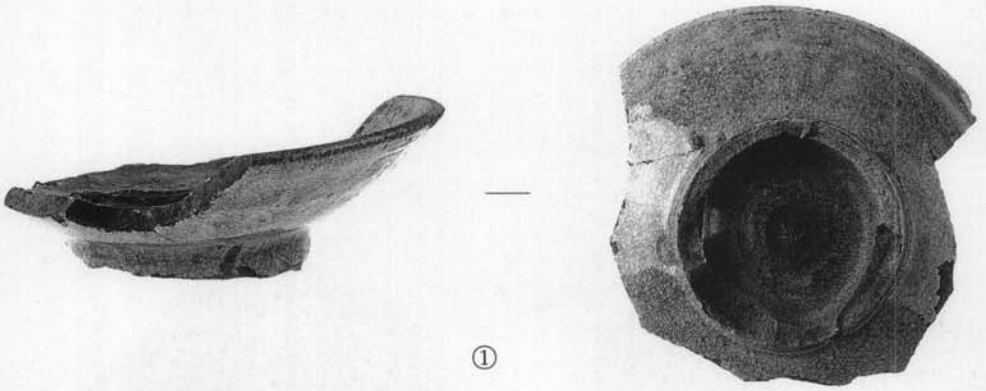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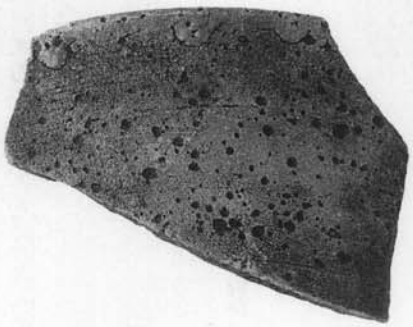
〈사진27〉 ①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가까운 모습
②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석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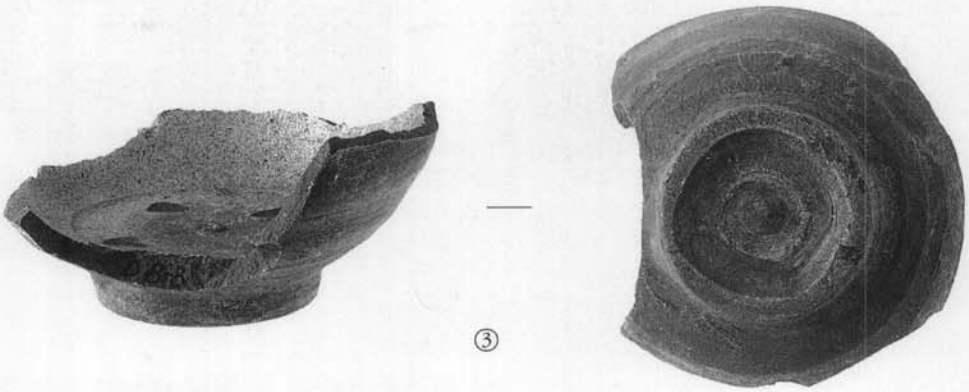
〈사진28〉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석재 모습



①



②



③

〈사진29〉 어달산 봉수대 출토유물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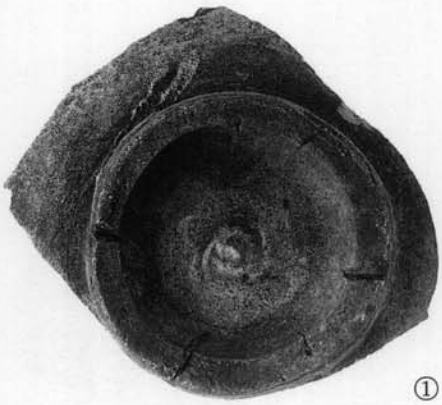


③



④

〈사진30〉 어달산 봉수대 출토유물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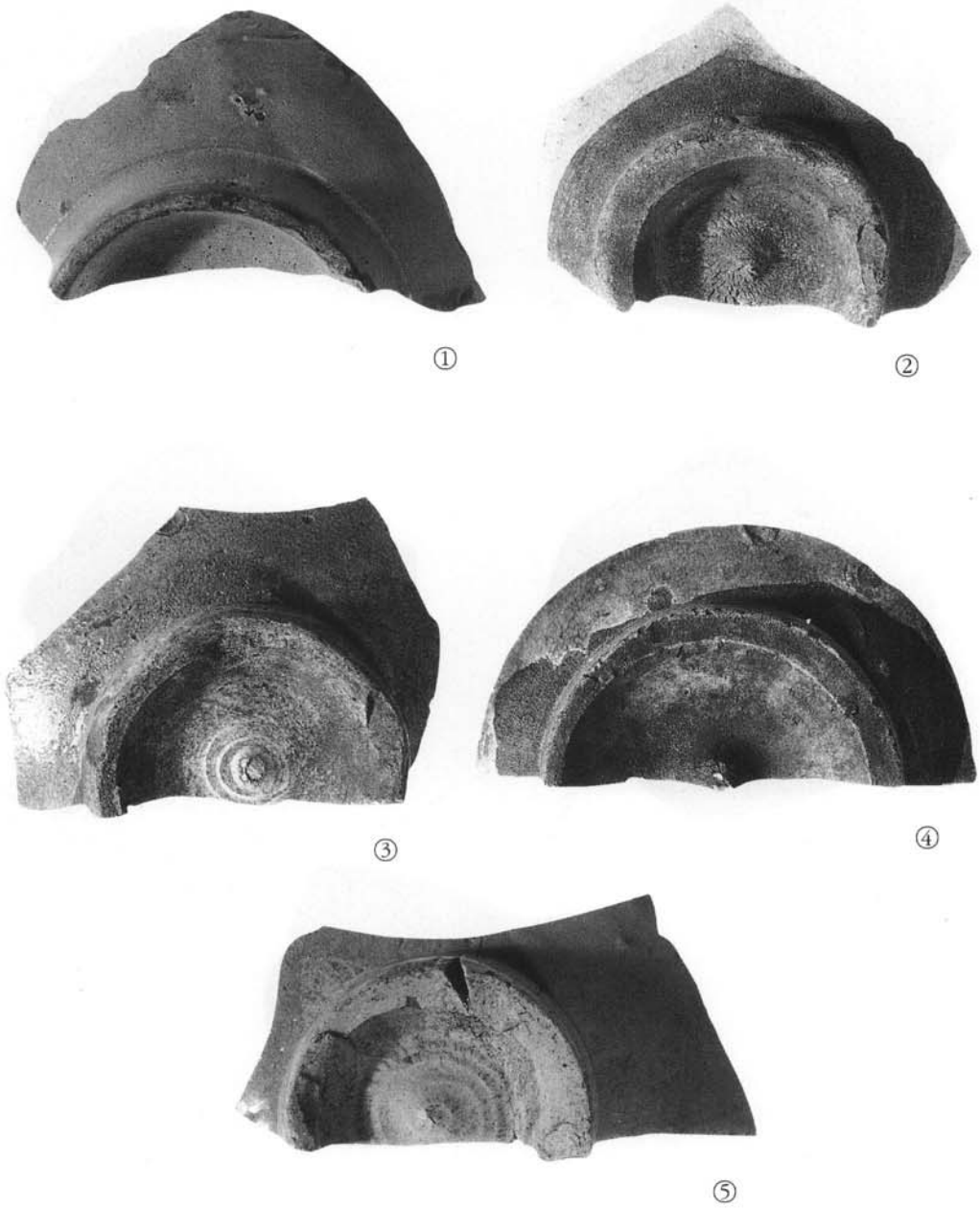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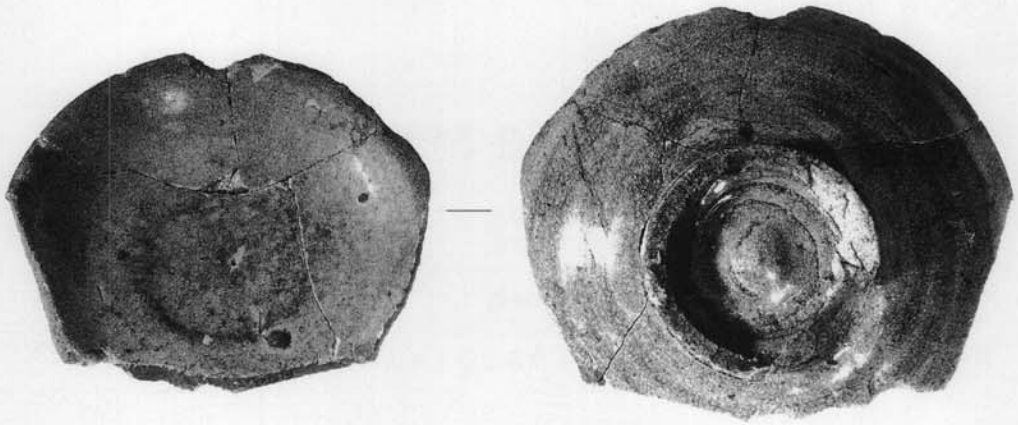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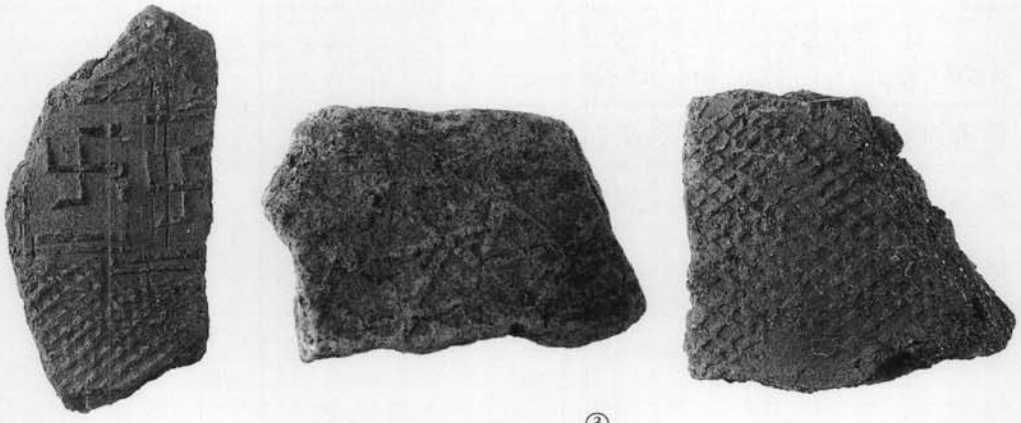
〈사진31〉 어달산 봉수대 출토유물



〈사진32〉 어달산 봉수대 출토유물



①



②　③　④

〈사진33〉 어달산 봉수대 남쪽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지표채집 유물

東海 於達山 烽燧臺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東海 於達山 烽燧臺		發刊日	2001년 7월
發刊機關	名稱	江陵大學校 博物館		
	住所	(210-702) 江原道 江陵市 池邊洞 123番地		
	TEL	(033) 640-2596	FAX	033) 640-2593
執筆·編輯者	이규대 · 고동순 · 윤석인 · 이창현 · 심상육			
調査緣由	동해 어달산 봉수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대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후 정확한 복원자료를 확보			
發掘調査者	지현병 · 고동순 · 박영구 · 이창현 · 심상육 · 최영희			
遺蹟所在地番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24-3번지			
調査面積	1,000㎡ (약 350평)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煙臺部	15C초~16C말	방형	백자 기와	
塹壕	15C초~16C말	깊이 0.8~1.3m 폭 2.3m	〃	